

정책연구 2012-5

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2012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다문화가정의 이론적 논의	9
제1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11
1. 다문화사회 개념	11
2. 다문화주의 개념	12
3. 다문화주의 이론	14
제2절 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24
1. 결혼이민자의 개념	24
2. 지원의 필요성	25
3.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27
제3절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새마을지회의 장점	35
제3장 새마을협의회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41
제1절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현황	43
1. 일반적 통계현황	43
2.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44



제2절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현황	47
1.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47
2. 농어촌 결혼이민자 주부 한국적응프로그램 I Love Korea	49
3.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정착 지도자 현장 교육	51
제3절 새마을지회의 지원사업	54
1. 서울시 광진구 새마을지회	54
2. 파주시 새마을지회	57
3. 안양시 새마을지회	59
4. 공주시 새마을지회	62
5. 문제점	65
6. 시사점 및 개선방안	69
제4장 의식조사	71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73
1. 결혼이민자	73
2.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78
제2절 시사점	79
1. 결혼이민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79
2.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강화	80



- 3.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 강화 81
- 4. 결혼이민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82
- 5. 친정부모 초청행사의 강화 83

제5장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 85

제1절 기본방향 87

- 1. 특성별 문제 극복 87
- 2. 단계별 활성화 방안 90

제2절 개선방안 93

- 1.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조직설계방안 93
- 2. 결혼이민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 96
- 3.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 실시 및 멘토추진단
 활성화 방안 103
- 4.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 운영단계 104

참고문헌 106

부록 :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 활동예산(안) · 109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방문사업	29
<표 2-2>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31
<표 2-3> 부산광역시 다문화업무 담당부서	35
<표 3-1>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현황(2012년)	43
<표 3-2>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	48
<표 3-3> 자치단체별 행사	49
<표 3-4> 한국적응 프로그램	50
<표 3-5>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52
<표 3-6> 출신국가별 행사참여자 수	59
<표 5-1>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표 5-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현황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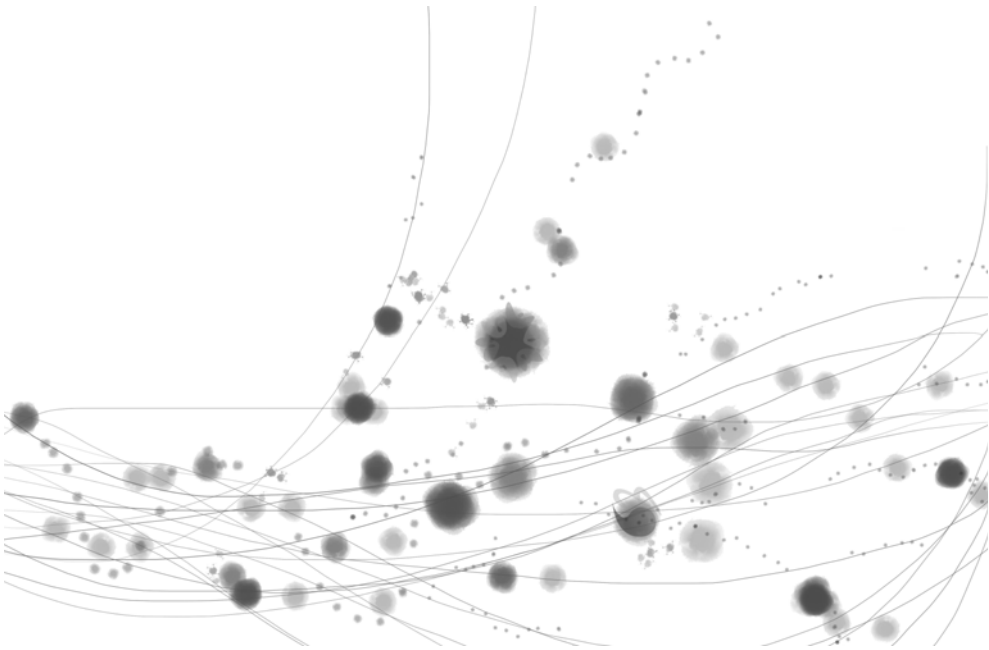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분석체계	8
[그림 2-1] 새마을운동 조직도	36
[그림 2-2]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구	37
[그림 5-1]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전국 조직도(네트워크)	94
[그림 5-2] 시·군·구새마을지회 추진조직도	95
[그림 5-3] 결혼이민자가정 지원단의 운영체계	99
[그림 5-4] 읍·면·동 멘토 추진체계	10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 론¹⁾

제1절 연구목적

-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통계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14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는 지난 2006년의 53만 6천여 명과 비교해 볼 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수(혼인3화자 포함)는 2002년 3만4천명에서 2011년 21만 1,458명, 2012년 220,687명(혼인귀화자 포함)으로 10년 사이에 약 6.5 증가하였음(행정안전부, 2012)
-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의 빠른 증가에 따라 사회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 이들의 가정적·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발생은 단순히 이들 개인 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1) 본 장의 내용 중 이론적인 부분은 조석주 외(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제1장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미흡하던 것이 사실임

-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일부 수행할 뿐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음.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교육지원·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정책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함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시·군·구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읍·면·동단위의 새마을부녀회 중심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강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연구 대상의 범위임
 - 우선, 본 연구의 실질적인 연구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가정을 꾸미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²⁾
 - 현재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체제를 보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부처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이외에도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등이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국내 진출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순수 시민운동단체와 새마을지회·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등의 단체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군·구 새마을지회 및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념은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음

○ 둘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임

-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새마을회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시·군·구 새마을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사례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결혼이민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사례지역의 새마을지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문제점 및 친정부모 초청방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시·군·구 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현황 분석과 결혼이민자 및 친정부모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새마을부녀회 중심의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및 양적분석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물론 관련 통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공무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사례지역 시·군·구 새마을지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첫째, 문헌조사임

- 구체적인 문헌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시·군·구 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전에 기존에 발표된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조사·분석하였음
- 결혼이민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와 관련 학자들이 학회지,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논문자료를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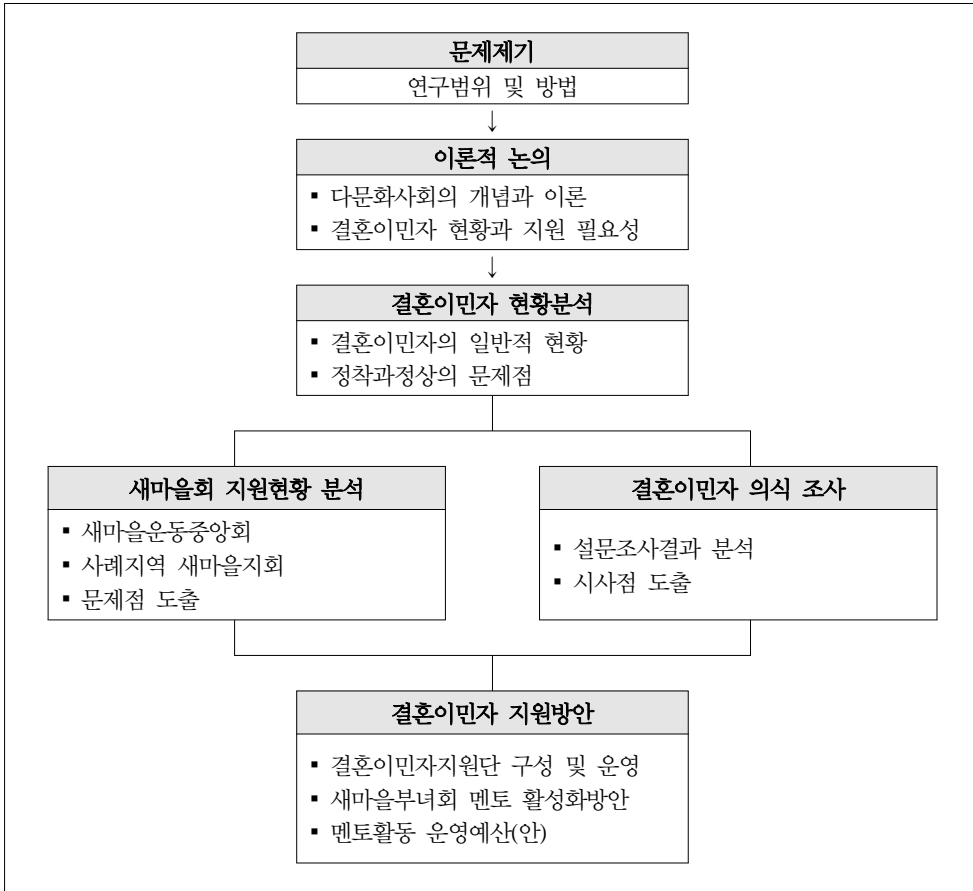
○ 둘째, 실태조사임

-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시·군·구 새마을지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수도권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농촌지역은 충남 공주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담당공무원, 새마을지회 관계자등과의 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또한 기존자료를 통해 서울시 광진구새마을지회와 파주시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셋째, 결혼이민자의 의식분석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식분석은 본 연구의 예산의 한계, 조사과정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기존 내용을 인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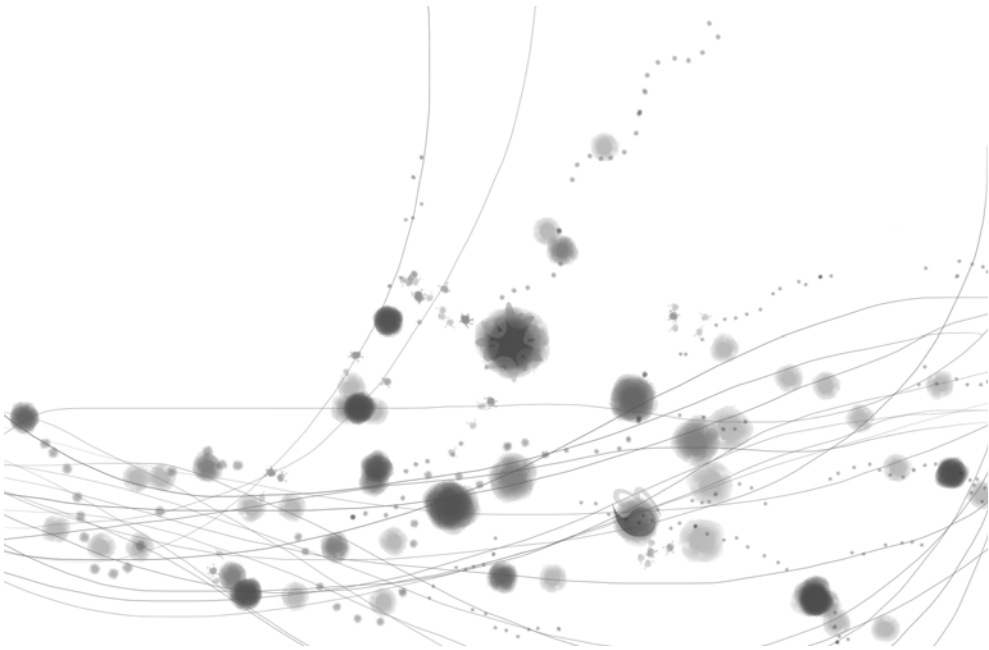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분석체계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제2절 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이론적 논의³⁾

제1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1. 다문화사회 개념

- 세계적으로 보면 가깝게는 중국이 오랫동안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유지해오고 있고, 멀리는 미국이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오고 있음
- 이밖에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인종사회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일찍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민족과 그들 문화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일찍부터 경험하였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따른 다인종·다민족화 및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현상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들 용어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문화사회란 용어의 개념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루어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

3) 본 장의 내용 중 이론부분은 ‘조석주 외(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제2장과 제3장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음.

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음 (김혜순, 2007: 15)

-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함
- 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⁴⁾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2. 다문화주의 개념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창되기 전에 서구 국가들에 의해 인종정책으로 채택되었던 동화주의⁵⁾나 문화상대주의⁶⁾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가 소개되었음
- 더욱이 산업화를 거쳐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가치체

4) 다문화사회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서구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외국인 민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5) 동화주의는 강한문화가 약한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일컫음

6) 문화상대주의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상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주의임

계가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 가치로 변화하고 사회의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다문화주의가 발전해왔음

-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구건서, 2003: 30). 하지만 각 국의 역사성, 문화성, 정부의 형태 및 특징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각 기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
- 베르토베츠(Vertovec, 1996)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몇 개의 인접한 소수 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밝혀있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 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을 의미함
- 이는 다양한 문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정체성은 강제와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의미함(조석주, 2007: 12)
- 트로퍼(Troper, 1999)는 캐나다의 사례에 근거하여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다문화주의는 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필요로 함
 - 첫째,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야 함
 - 둘째, 사회 내에 상호 다른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이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인종적·민족적 차이에 따른 불이

익을 받지 아니 하며 모든 개인이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3. 다문화주의 이론

-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는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이었음
-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일회성 내지 단기적인 체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국민의 일부이며,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현상은 분명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필요로 함
- 아직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념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현상을 바라봐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사회의 이념체계를 모색해 보고자 함

가. 다문화사회의 유형

-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있음
- 하나는 사회 내부의 문제 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타인종·타민족·타문화가 유입되는 형태임
 - 세계화·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자본과 노동시장이 보다 빠르게 확대·이동하고 국가 간의 물질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활발해져 각 국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장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다른 인종과 문화의 인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함

-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임
 - 이러한 사회의 대표적 예는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다문화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음(김남국, 2005: 98)
-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지켜온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외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였으며, 이들 외국인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찾아 집단적으로 이민을 오게 된 형태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우리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따라서 이들과의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적으며 반대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즉, 다문화주의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임

나. 다문화사회의 수준과 사회통합의 유형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유형의 경우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함께 공존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주의의 수준과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기 때문에 소수집단으로서 외국인들의 우리 사회

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한 정도임

- 특히, 우리나라 보다는 경제적·정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 소수자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좀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기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임
- 소수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음(이혜경, 2007: 224-5)
- 첫째, 주류사회의 문화에 소수집단의 문화가 흡수되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형태로서 이를 ‘동화 유형’이라고 함
- 둘째, ‘용광로 유형’으로서 다양한 문화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하나의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함(최현미, 2008: 103)
 -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국은 소수자들의 고유한 언어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전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문화적으로 주류사회에 동화되면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대표적으로 1960년대까지의 미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셋째, ‘다문화 유형’ 또는 ‘통합 유형’임⁷⁾
 - 이것은 소수 외국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문화나 언어를 간직한 채 주류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형은 주로 1970년대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대표성도 인정하는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7) 동화 유형은 일방적인 형태를 의미한다면 다문화 또는 통합 유형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쌍방향적인 형태를 의미함. 김희정(2007: 75) 참조.

띠고 있음

- 하지만 각 국가 마다 주어진 환경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으로서의 다원주의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다문화주의의 목적과 정책유형

-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에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소개되었음
- 그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한 사회발전에 있지만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각 사회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
- 또한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이나 법률적인 개선을 목표로 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의식적 개선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음
- 첫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국민통합으로 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역할을 함
- 둘째, 일찍부터 외국의 노동자 유입이나 소수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각 종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소수민족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들 소수자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제도적·법률적으로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설동훈 2008), 소수자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셋째, 다문화주의가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목적이 국가수준을 벗어나 시민사회, 더 나아가 개인수준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임
- 그 중에서 일단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이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 차별의식 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필요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구건서, 2003: 44-45)
- 위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크게 제도적인 것과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지탱해주던 각 종 법규나 규범들이 소수자들의 유입과 그들과의 공존을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제도라든지 사회규범 및 처벌규정 등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소수자들의 기회균등과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소수자들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운영적 측면에서는 소수자들이 주류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각 종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언어교육으로서 소수자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기관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또한 이들 소수자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교육이나 유적지 탐방과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라. 다문화주의의 모델

-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아직 구체적이고 합의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서구에서 발달한 이념체계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다문화사회로의 전이와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 또한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특성과 위에서 살펴 본 외국인 유입의 양태 등을 고려한 이론적 모색이 필요함
-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음
- 그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다인종·다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의 고유한 가치체계와 사회질서의 규범을 간직한 채 이질적인 문화와의 조화와 조정을 통한 다문화사회를 의미함

- 그러나 다문화사회구조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 문화 간의 문화적 융합과 조화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 또한 각각의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다문화주의의 모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추진 주체와 목적 및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제임
- 본 절에서는 다문화주의 이론을 고찰하기 위하여 추진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살펴 봄⁸⁾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 사회의 다문화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집행은 국가의 업무에 속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주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이유는 우선 국익 차원에서 타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민주국가로서의 지위에 맞는 사회유지 및 통합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국가는 국가 간의 인적교류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사회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

8) 본 절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용어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윤인진(2007)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음

책을 목표로 함

- 즉,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유형은 국가의 소수자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나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국가 등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찾아 볼 수 있음(김희정, 2007: 60-61)
- 국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으로, 국가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외국인들을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
-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교육, 취업알선, 기술교육, 다문화 축제 주최,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김희정, 2007: 60-61)
- 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함
- 또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정책의 시행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함

2)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제로 모든 외국인에게 균등히 적용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문제나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는 물론 그들의 이익대변 기능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다문화주의는 지역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상호 인정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돕고 문화적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함
- 또한 외국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모하기도 하며, 때로는 정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함
- 하지만 시민사회주도의 다문화주의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고, 시민단체의 재정적·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및 탈법의 범위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시민사회 내의 다양성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공통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3) 협력적 다문화주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가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의 정책적 범위 안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다문화주의 운동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전체적으로 다문화주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 국가가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시간적·인력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처 국가가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가 보충해 줌으로써 외국인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다문화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체제가 도입되고 있는데(강휘원, 2007; 홍기원, 2007; 이종열·황정원·노지영, 2008), 다문화주의의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국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체제가 양자 간의 협력적 다문화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거버넌스체제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외국인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주의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2절 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1. 결혼이민자의 개념

-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존재함
-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이재정, 2003: 104) 이들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등록된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보면 거주, 동거, 상용투자, 취업, 종교, 유학연수 그리고 산업연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거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로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회사의 상사나 지사에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임
- 결혼이민자는 이들 외국인과는 달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구히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외국인으로,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함
- 이들은 결혼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결혼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은 결혼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하여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 2년 미만의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로 구분 됨⁹⁾

9)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자, 즉 혼인귀화자 및 국적 미취득자 모두를 포함하였음

- 그러나 아직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나 결혼 후 2년이 경과한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한국인이 된 결혼이민자 모두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임
- 이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정착과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으로서 자신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들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응과정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기에 충분함

2. 지원의 필요성

-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현재까지는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 수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유발 및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음
- 단일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다른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님
- 더욱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가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특히 도시 주변과 농촌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문제와 이들의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문화현상 내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전환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¹⁰⁾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있어 각 국 간의 물적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 각 국 간의 정치·군사적 교류보다도 문화적 교류의 양과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베트남과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 퍼지고 있는 “한류열풍”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파는 물론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 각 국 간에 발생하는 인적 및 문화적 교류의 일상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특히 농촌 총각의 결혼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나아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로의 유입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우리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아직은 소수자들인 이들 결혼이민자들을 어떻게 우리사회에 편입시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임
- 특히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

10) 한경구·한경수(2007: 73)는 외국인들이 초기에 주로 이주노동자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유입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는 이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함

해 다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3.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등을 통해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¹¹⁾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정책의 형성은 중앙정부의 주도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음(윤인진, 2007: 259)
-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주요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함

가.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우선 외국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함. 특히, 외국인의

11)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초기의 규제와 관리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거쳐 이들이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그리고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 이해경(2007: 220) 참조.

출입국관리와 관련부처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외국인정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함을 깨닫고 외국인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이 기존의 소극적·수동적·폐쇄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능동적·개방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외국인지원정책 중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처음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음
- 이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였고, 정부는 이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2005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의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안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6년 4월에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정책안을 발표하였음¹²⁾

12) 발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④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⑥ ‘다문화에

- 여성가족부는 2006년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21개소) 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이해를 돕고 있음
- 이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¹³⁾, 주요사업은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실 운영 등임
- 이중 방문교육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으로 한국어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표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방문사업

사업명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10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간은 총 10개월 (2~6월, 8~12월)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⑦ ‘추진체계 구축’ 등임.

- 13)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뀜. 정부는 2008년 9월 9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이외에 각 부처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2>와 같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2007년 7월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¹⁴⁾
 -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 마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다른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14)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출입국관리, 외국인인권, 난민, 이민정책, 산업인력확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외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표 2-2>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부처별	분 야 별	주 요 정 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및 학생 멘토링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교대), 우수사례 발표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지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민자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영주권 및 국적취득, 난민처우 관련 업무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다문화 이해 증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표준안 시달)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마련 및 생활정착 지원 교육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다문화사회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 콘텐츠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 여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10. 3.19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

-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민자들의 정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주로 담당하였음
-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보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타문화 및 타민족과의 공생해야 하는 현실성과 필요성에 관한 이해력을 향상시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함
-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결혼이민자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및 역할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지원, 취업과 주거 및 사회보장과 같은 생활지원, 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그리고 지역 내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시민단체 내지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짐
- 2006년 처음으로 전국에 21개소가 운영되었고,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지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80개소, 2011년에는 201개로 확대·운영되고 있음

다. 기존 정부의 다문화지원사업의 문제점

1) 현장 수요와 맞지 않음

-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사업 및 프로그램이 부족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결혼이민자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의 특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출신국가별, 연령대별 등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이와 같이 센터중심의 민간위탁으로 다문화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시군의 경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센터가 1-2개 위치하고 있어 면단위 거주 결혼이민자가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교통편·시간적으로 너무 불편함. 즉 접근성이 너무 떨어짐

2) 국가의 예산투입 대비 비효율이 큼

-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의 비협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제도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가정은 관련정보를 취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관련정보 취득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 이유는 남편 등 가족이 결혼이민자가 외부 기관에 나가 교육을 받을 경우 주변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본인의 환경을 알게 되거나 그로 인해 도주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외출을 최대로 통제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권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
- 실질적으로 2010년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27%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여성가족부의 2012년 20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은 406억원으로 예산투입에 비해 실질적인 수혜자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3) 부처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부서명의 차이로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 지원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 결혼이민자의 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노동부,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정책에 문제가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음. 즉, 외국인근로자 담당부서와 결혼이민자 담당부서의 분리에 따른 외국인종합업무수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진천군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사회복지과, 외국인근로자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행정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부서명의 차이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지원담당(계, 팀)이 소속된 부서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결혼이민자나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같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16개 자치구의 다문화지원부서의 명칭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 2-3> 부산광역시 다문화업무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중구	여성가족과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서구	가족행복과	사하구	복지사업과
동구	주민복지과	금정구	복지지원과
영도구	복지사업과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과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연제구	가정복지과
동래구	복지과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남구	주민복지과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북구	주민복지과	기장군	복지지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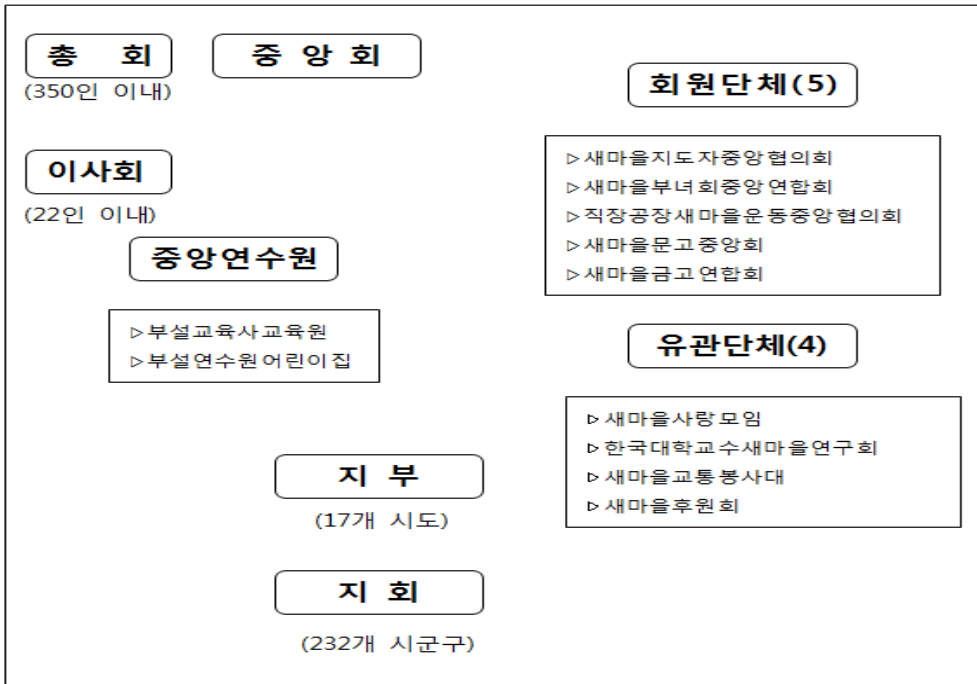
제3절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새마을지회의 장점

가. 마을단위로 조직된 부녀회 활용 가능

-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계승하고자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발족하였고 이에 따라 그 동안 국가에서 주도하던 새마을운동이 민간조직(단체)으로 이양되었으며 현재 뉴새마을운동은 민간기관인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새마을운동의 기구를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17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 지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사무국에는 상근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음
- 그 외에 총회, 이사회, 중앙연수원이 있고 회원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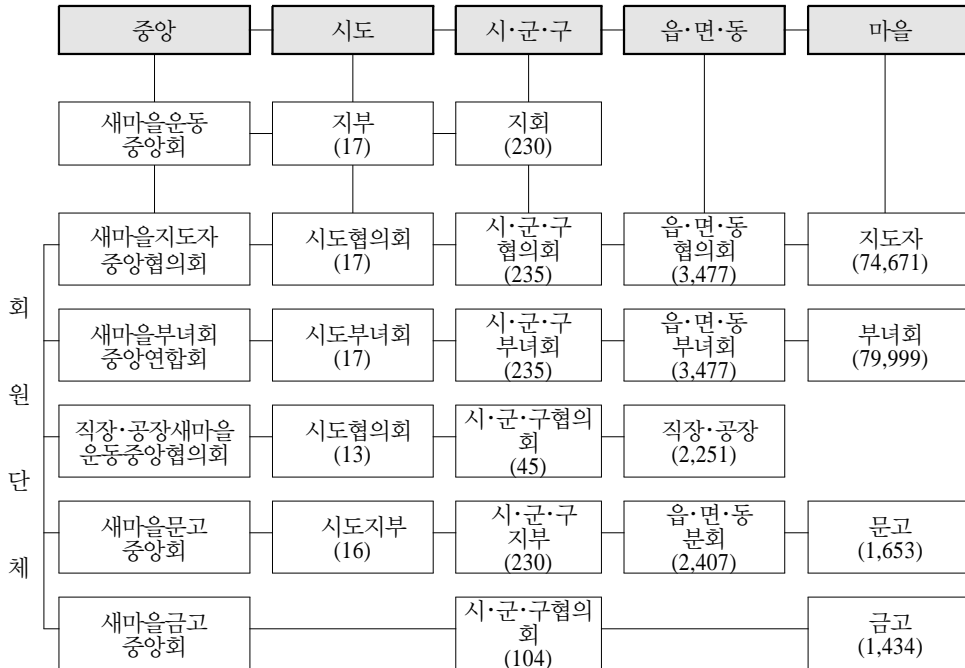
을문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5개의 회원단체가 있음. 이외에 유관 단체로서 새마을사랑모임,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후원회 등 4개의 유관단체가 있음

[그림 2-1] 새마을운동 조직도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협의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문고연합회 등 5개협의회는 각각 지부로서 시도협의회가 있고, 지회로서 시·군·구협의회가 있음
- 또한 읍·면·동단위로 읍·면·동 조직이 있으며 각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210만여 명의 전국 회원과 18만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있음
- 이와 같이 마을단위 까지 조직화된 부녀회 등을 통해 이주민 특히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의 도움은 물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그림 2-2]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구



나. 전국단위 균일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혼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럴 경우 기관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외국인 지원사업을 지나치게 수익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음
- 이와 같이 민간위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위탁기관의 역량 및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중앙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지도자교육을 통해 지도자 및 부녀회원의 역량과 질이 일정 수준 전국적으로 균등화되어 있음

다. 근거리에서 멘토 가능

- 현재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관련 NGO 등에 나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일정 기관에 나가 교육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있는 장소가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왕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일수록 심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
- 또한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위의 기관에서 교육 혜택을 받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시·군·구새마을지회의 경우 마을단위의 부녀회, 지도자가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만나 멘토가 가능함

라. 일상생활속에서의 지속적인 멘토 가능

- 읍·면·동 및 통·리, 마을단위의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등은 같은 지역의 결혼이민자들과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면서 결혼이민자 개인 일이나 집안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시·군·구 새마을지회 등의 회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본인의 차 또는 새마을지회의 차를 통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시키거

나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돌 볼 수 있어 자연스런 인간관계의 형성이 가능 함

- 따라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서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사정이나 집안 일 등 어려운 일에 대해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음
- 즉,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관련 NGO 등에서와 같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아닌 서로 동등한 이웃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어 결혼이민자에게 편안한 멘토가 가능함

마. 결혼이민자 중 소외계층의 멘토 가능

- 우리나라의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2012년 220,687명(혼인귀화자 포함)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NGO 등에 참여하여 교육 등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이들은 남편이나 가족의 이해 하에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층에 속하며 일부 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의 반대와 몰이해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왜냐하면 이들의 일부 남편은 의처증 또는 그들의 아내가 외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자신 및 자신의 가정이 비교되는 것을 꺼려 외부기관으로의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결혼이민자라 하더라도 이웃에 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이웃 사람으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런 접근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멘토할 수 있음

바. 결혼이민자 멘토 양성과 교육훈련 가능

- 새마을운동은 마을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또한 제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한 새마을교육을 통해 능력을 기르고 자질을 높였으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그만큼 발전의 속도가 빨랐음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을 교육훈련을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 동기부여 시, 새마을 부녀회원의 적극적 참여 가능

- 새마을운동의 경우, 농촌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도시 등 다양한 계층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음
-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아래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부터 자연보호, 오염방지, 질서운동 등으로 확대되어 갔고 그 범위도 직장과 공장, 학교, 군부대까지 확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졌음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리서치&리서치가 새마을운동 29주년을 맞아 향후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으로 ‘국민의 참여’(76.1%), ‘정부의 지원’(14.6%), ‘새마을지도자의 희생봉사’(8.5%) 순임
-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국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는 정당한 논리와 명분하에 동기부여가 확보되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멘토가 가능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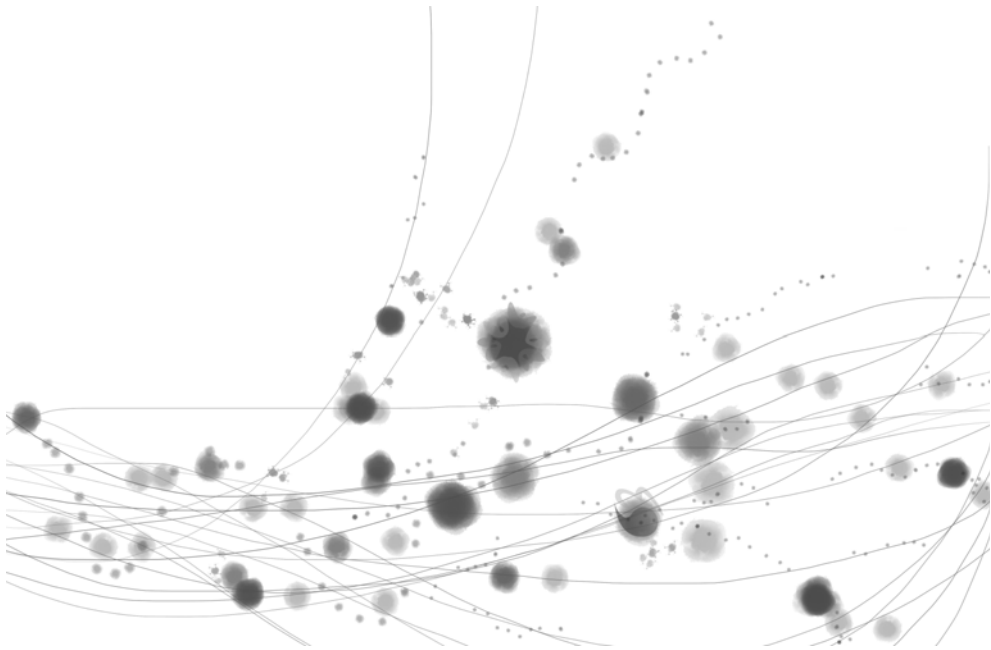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제 3 장

새마을협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현황

제2절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현황

제3절 새마을지회의 지원사업



제 3 장

새마을협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현황

1. 일반적 통계현황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증가추세를 보면, 2008년 891,000명, 2009년 1,106,000명, 2010년 1,139,283명, 2012년 현재 1,409,577명으로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주민 증가폭은 경제회복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10%이상 크게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추세에 있음
- 한편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2008년 144(천명), 2009년 167(천명), 2010년 181(천명), 2011년 211,458명, 2012년 220,687명임

<표 3-1>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현황(2012년)

국적미취득(1,117,481명, 79.3% / 90일 이상)					국적취득(123,513명, 8.8%)		자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혼인귀화	기타	
588,944명 (41.8%)	144,214명 (10.2%)	87,221명 (6.2%)	135,020명 (9.6%)	162,082명 (11.5%)	76,473명 (5.4%)	47,040명 (3.3%)	168,583명 (12.0%)

자료 : 행안부 홈페이지 참조

- 현재 1,409,577명의 외국인주민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1,117,48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근로자 588,944명, 결혼이민자 144,214명, 유학생 87,221명임
- 한편 한국국적 취득자는 123,51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8%이며, 이

중 혼인귀화자 76,473명, 기타 사유자 47,040명임

- 외국인주민 자녀는 168,58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2.0%임

2.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 결혼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남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제결혼 대행업체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불화 및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함. 한편,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 부담감은 물론 언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자녀교육과 취업 및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장애요인 또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첫째, 결혼이민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적 어려움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임
 -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취업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됨
 -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적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절박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둘째, 자녀교육의 문제임

-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 자녀의 교육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됨
 - 엄마의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교육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에서부터 학교 입학 시 자녀의 학업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과로부터 엄마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생김
 -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들의 사교육에 대한 지원도 약할 수밖에 없어 학업성과가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기도 함
 - 학교 내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환경이 부족하여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됨
- 셋째, 결혼이민자의 이혼율 증가임
-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 가정 내의 폭력과 인신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건수는 2002년 1천866건에서 2009년 1만1천692건으로 6배가량 많아졌는데¹⁵⁾(경인일보 2011. 5. 15) 이렇게 급증하는 이혼사례의 사유로는 가정 내의 폭력 및 위장결혼이 주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 넷째,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빈곤임
- 결혼이민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있

15) 결혼이민자가 4년 내 이혼하는 비율은 79%로 국내 평균 27.2%에 비해 2.9배에 달한다(경인일보, 2011.5.15)

어 빈곤가구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즉, 결혼이민자 가족 20% 이상이 가구 소득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 수입을 얻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21.3%로 일반 내국인의 9.7%에 비해 월등히 높음(매경이코노미 제1585호, 2011.12.15)

-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신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부딪치는 사회적 편견과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있을 수밖에 없게 됨

○ 다섯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임

- 결혼이민자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한국사회에 흡수 또는 양립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함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에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직장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감내해 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음

○ 여섯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함

-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결혼이민자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구미와 창원 등지에서 집단거주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이 집단 거주화 하는 것은 상호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사회

의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기들 끼리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슬럼화되면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또한 내포하고 있기도 함

-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처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
- 언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 제약과 가정 내의 비협조로 인해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같은 지원단체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결국, 각종 지원단체의 사업이 일부 결혼이민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지원과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점 점 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될 수 있음

제2절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현황

1.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가. 행사개요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은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까지 6박 7일간 이루어졌음
- 본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행사위탁형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50,000(천원)이 소요되었음

- 초청대상은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40가정의 78명으로 베트남 22가정(43명), 필리핀 8가정(15명), 캄보디아 10가정(20명)이 초청되었음
- 행사의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음

<표 3-2>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1일차 (9.1)	오전	· 입국	
	오후	· 63빌딩·국립중앙박물관 관람, 환영행사	
2일차 (9.2)	오전	· 청와대 방문·청계천 관람	※ 장관님 참석
	오후	· 경복궁 관람 · 환영만찬	
3일차 (9.3)	오전	· 한국민속촌 관람	
	오후	· 새마을중앙회 연수원 방문 · 자녀가정 이동	
4~7일차 (9.4~9.7)		· 시도 자체행사, 자녀가정에서 생활	※ 9.7 출국

자료 :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중앙회,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자료집, 2011.

나. 주요 성과

첫째, 결혼여성이민자의 소외감 해소임

- 결혼이민자 가정과 친정부모의 경제적 형편으로 장기간 갖지 못했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여성이민자의 소외감 해소 계기가 됨
- 동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와 새마을 부녀회원과의 1:1 자매결연을 통해 소속감 부여 및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결혼여성이민자 및 친정부모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둘째, 결혼이민자 출신국 정부와의 우호관계 증진임

- '07년부터 매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출신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를

초청함으로써 해당 정부와의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

- 환영만찬 시 해당국 고위외교관(필리핀 대사, 캄보디아 참사관)이 참석하여 동 행사에 대한 감사 표명 및 참석자 격려

셋째, 적극적인 언론보도로 다문화 포용분위기 확산임

- 방송·신문·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가 집중보도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관심을 제고함
- KBS뉴스(9.2), SBS모닝와이드(9.8), 동아·문화·세계일보, 서울신문 등
- 각 지자체가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됨
 - 16개 시도별로 지역명소 문화탐방 및 자체환영행사 실시

<표 3-3> 자치단체별 행사

자치단체	주요 행사
서울 마포·양천구	▪ 서울 시티투어 및 롯데월드 방문 실시
경기 광명·이천시	▪ 건강검진 지원, 로봇박물관, 행주산성 등 견학
충북 제천시·영동군	▪ 청풍문화재단지, 단양고수동굴, 국악박물관 체험

자료 : 새마을운동중앙회, 다문화가족 친정가족 맺어주기 결과보고, 2011.

2. 농어촌 결혼이민자 주부 한국적응프로그램 | Love Korea

가. 사업개요

-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농어촌 결혼이민자 주부 한국적응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 본 사업은 새마을중앙회 공모사업과 시도 및 시·군·구새마을조직의 자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음

나.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 역량에 따라 실시됨
- 주 1~2회 결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총론적 교육과 한글교실, 우리 전통음식 만들어보기, 문화유적지 견학, 기술교육 등 체험교실 운영과, 결혼이민여성자의 남편을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

<표 3-4> 한국적응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강의명)	세부내용
제1일차	▪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제2일차	▪ 남편과 함께 고향 알기	결혼여성이민자 주부 고향 특강
제3일차	▪ 기초한글교실 ▪ 아내국가 언어교실	우리말의 글과 기초 아내국가 기초 언어 특강
제4일차	▪ 한국음식 만들기	김장김치, 장 담그기, 명절상 차리기
제5일차	▪ 한국 이해하기	한국인의 가치관, 생활의식, 한복 입기, 인사예법 등
제6일차	▪ 한국역사, 문화유적지 견학	한국문화유적지 탐방 및 전통세시풍습 (옷놀이, 강강술래, 공기놀이)
제7일차	▪ 취업지원교육	취업상식, 한국의 직장문화 이해, 성공적 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뜨개질, 알공예, 초코아트, 비즈공예등
제8일차	▪ 수료식	모범주부 표창, 한국정착수기 발표

자료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다문화가족정착 지도자교육 결과보고서, 2011.

다. 주요 성과

- 소규모 지역단위의 행사로 한국정착에 도움
 -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의 생활풍습, 문화, 언어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경우가 대다수로 낯설고 두려움
 -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읍·면·동, 리·통 조직을 갖고 있는 새마을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유도

- 공동체 일원으로서 안정감 부여
 - 일회성, 의례적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주민과 시민사회가 이들과 밀착하여 1:1로 함께하는 멘토링 및 이모·자매 맺기 등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시킴
 - 혼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움을 받을 이웃이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웃의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하여 ‘한국은 낯설지만 한 타국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갈 내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효과를 얻음
-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심어 줌
 - 비록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인과 혼인하여 살게 되었지만 인심도 좋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줌
 - 이들 주부들의 출신국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가브랜드 상승의 효과를 기대
- 사회적응력 향상
 -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 함양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 적응력, 자립심 향상시킴

3.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정착 지도자 현장 교육

가. 사업개요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5회에 걸쳐 새마을중앙회가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며 실시되었음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중앙회에 위탁형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48,000천원이 소요되었음

나. 교육프로그램

- 교육인원은 1회에 60명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새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2일간 실시됨

<표 3-5>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프로그램)	교육내용
1일차 09:00 { 16:30	입교식 및 기념촬영	
	우리는 한마음 Ice Bre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친목다지기/벽허물기 • 스트레스 해소 및 웃음과 건강
	한국 가족 문화 이해/참여 (I,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전통예절/한국가정 문화 이해·결혼관/부부이해/자녀교육/갈등관리
	가정의 역할과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과 자녀관계 • 자녀의 정체성 확립
귀 가		
2일차 09:00 { 16:30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및 상담능력 배양 • 멘토로서 역할, 지도요령, 갈등관리
	정착우수사례 및 소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후 자기 느낌과 소감 • 정착사례 발표 - 개인/단체/나라별 발표 등
	멘토역할 및 교육활동 소감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문화 감수성 교육 • 다문화가족의 멘토역할과 리더십
	결연식 및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부녀회장과 결연 • 우리함께 살아요 !
귀 가		

자료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다문화가족정착 지도자교육 결과보고서, 2011.

다. 주요성과

- 한국가족 문화의 이해
 -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에 대한 인류 문화 이해
 - 전통적인 한국 가족 문화와 가족 간 역할 관계 이해
- 가정의 역할과 자녀교육(한국의 가정교육 이해)
 - 적응과 부적응의 사례를 비교 분석 제시
 - 이주민인 부모와 현지 태생인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
 -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구성원들의 역할과 갈등관리 이해
-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갈등관리와 상담요령)
 - 멘토로서 역할과 지도요령, 대화기법, 갈등관리, 상담요령 이해
 - 후배 여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과 자긍심고취
-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정착 (한국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
 - 새마을운동을 통해 형성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 이해
 -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와 참여방법 안내
- 새마을부녀회장 :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내국인 문화 감수성 교육)
 - 문화 다양성과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멘토 역할의 이해
 - 가족의 기능과 역할로 멘토의 자질 함양
 -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리더십발휘와 활동 이해
- Ice Breaking(레크레이션 활동)
 - 교육 시간전후 다양한 스포츠활동으로 놀이학습과 레크레이션 전개.
 - 스킨십에 의한 다양한 출신국별 학습자 간 친밀도 증대
- 멘토 및 엄마/이모, 자매(친구)되기
 - 새마을부녀회장 멘토의 책임의식 고양과 멘티로서 자세 이해.
 - 멘티의 심리적 안정과 참여활동 안내
 - 이주여성들을 새마을부녀회원으로 가입

제3절 새마을지회의 지원사업¹⁶⁾

1. 서울시 광진구 새마을지회

가. 2011년

1) Happy Korea 광진구다문화가정 사랑의 화장품세트 전달

- 수량 : 화장품 50세트

2) 설맞이 온정의 손길 사랑의 목도리 드리기 및 떡국잔치

- 후원 :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멘티 다문화가정 30명
- 참석인원 : 200명
 - 사랑의 목도리 드리기 , 사랑의 떡국 잔치

3) 마을기업 다문화 이주여성 뜨게질 교육

- 참석인원 : 25명(부녀회장 및 동회장 10명, 다문화 이주여성 15명)
- 주요내용 :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뜨게질 교육 및 실습

4) Global Korea 다문화 이주여성 한국음식 무료 교육

- 참석인원 : 60명(다문화 이주여성 동별 3명~4명)
- 주요내용 : 탕수육, 짜장 만드는 방법 교육
 - 탕수육은 함께 먹고, 짜장은 다문화이주여성에게 각 2Kg씩 주었음

16) 새마을지회의 지원사업 중 서울시 광진구 새마을지회, 파주시 새마을지회의 내용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작성된 자료 '다문화가정 사업추진 관련 자료'(2012)에서 일부 인용하였으며, 안양시 새마을지회와 공주시 새마을지회의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현지를 출장·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내용 및 내부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5) 소외계층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및 다문화 이주여성 한국음식 무료 교육

- 참석인원 : 145가정(이주여성 다문화 27, 소외계층외 118가정)
- 수 량 : 145박스(박스당 10Kg) 백김치, 소고기 장조림, 구운 김, 햇감자

6) 2011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 참여

- 기 간 : 2011. 10. 28(금) ~ 10. 29(토)
- 내 용 : 다문화(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먹거리 판매

7) 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랑의 목도리 뜨기 및 릴레이 전달식

- 후 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
- 뜨개질 뜨기 기간 : 2011. 10. 10 ~ 2011. 11. 25
- 목도리 뜨기 : 다문화 이주여성(1개당 수공료 7,000원)
- 목도리 뜨기 자원봉사 :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 및 지도자 31명(동별 2명)
- 전달 수량 및 횟수 : 750개(6회에 걸쳐 드림)
- 전달기간 : 2011. 12. 7 ~ 2011. 12. 13

8)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친정방문 및 다문화 이주여성 모교 학용품 지원

- 행사기간 : 2011. 6. 18(토) ~ 6. 23(목) / 6일간
- 다문화 가정 : 필리핀 2가정
- 물품지원 : 컴퓨터 2대 및 생활용품 330점 기증, 책가방 186점, 학용품 3,000점 기증

9)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

- 일 시 : 2011. 8. 25(목) 09:00~17:00/ 한국민속촌

10) Global Korea 2011 광진구 다문화 가족의 밤

- 일 시 : 2011. 11. 16(수) 18:30~21:00 / 250명

11) 광진구 다문화가정 및 관내 장애인 사실혼 가정 합동결혼식

- 주 레 : 손병두(KBS 이사장)
- 인원 : 10쌍 / 하객 및 내빈 250여명

나. 2012년

1) 사업명 : 다문화 가정과 함께 시장보기 투어

- 후 원 : 이마트 자양점 (다문화 1가정당 2만원짜리 쿠폰 후원)
- 일 시 : 2012. 3. 14(수) 14:00~15:30 / 집결일시 13:30까지
- 다문화가정 선발 인원 : 30명(동별2명)

2)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모교 생활용품 지원

- 2011년도 광진구새마을부녀회와 필리핀 누에바에시하 홀리아도 초등학교와 MOU 체결에 의거, 2011년도 방문 시 약속한 생활용품을 필리핀 홀리아도 초등학교에 생활용품
- 전달물품 : 컴퓨터 5대, 월드컵 T셔츠 200점, 타올 150장, 학용품 100점, 라면 10상자, 사탕 등

3) Happy Korea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랑의 목도리 뜨기 교육(1차~2차)

- 일시 : 2012. 6. 8(금), 6. 26(화)
- 참여인원 및 교육대상 : 65명
- 사업명 :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소통의 문화 영화관람
- 일시 및 참석인원 : 2012. 7. 20(금) 14:00/ 50명
 - 뜨개질 교육 및 영화관람 완득이

4) Global korea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 참석

- 일 시 : 2012. 8. 9(목) 08:00~18:00
- 장 소 : 수가솔방(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558-1)
- 사업량 : 45명(이민여성 24, 부녀회장 16, 기타 5명)
- 주요내용 : 솔잎비누 및 샴푸 만들기, 솔잎 짬질방, 한국음식 체험

2. 파주시 새마을지회

가. 2011년

1) 다문화 지도자 교육 및 이주여성 과 부녀회장 1:1 멘토링 결연

- 참석인원 : 206명 (이민여성 96, 부녀회장 : 110)
- 사업내용 : 부녀회장과 이주여성 1:1 멘토-멘티 결연 및 한국 사회의 문화와 예절, 한국 사회 이해
- 효과 : 가족에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 마련

2) 사랑의 김장담그기

- 사업비 : 19,000 천원(자부담: 9,000, 보조 10,000)

- 참석인원 : 400명 (이민여성 60, 부녀회장 : 300, 협의회장 : 40)
- 사업내용 : 3일간 김장담그는 방법을 익혀 실제 생활에 도움
- 효과
 - 한국 전통 음식(김치) 담그는 방법 터득
 -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 고취

3) 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 축제 참여

- 참석인원 : 600명 (이민여성 10, 부녀회장 490)
- 사업내용 : 토속 음식 부스운영 12개 읍·면·동 부녀회장
- 주관 : 파주시
- 효과 : 전국적인 큰 행사로 이주여성도 함께 동참하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좋은 계기

나. 2012년

1)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

- 참석인원 : 100 명 (이민여성 40, 부녀회장 40)
- 사업내용 : 전통 장담그기(고추장) 방법과 김밥 만드는 방법을 전달
- 효과 : 인정이 넘치는 해피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이주여성과 함께 정을 나누고 우리 음식문화를 알려 이주여성 가정에서도 실시하여 가족애를 서로 발휘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안양시 새마을지회

가. 결혼이민자 생활정착을 위한 다문화 정착 지도자 교육

1) 교육목적

-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언어소통, 생활환경 적응, 자녀교육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정착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녀회원과의 멘토사업을 전개하여 살맛나는 공동체 형성
- 외국인에 대한 편견해소 등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하여 국가브랜드 향상 및 선진국 진입기틀 마련

2) 교육 개요

- 본 사업의 기간은 2010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새마을 회관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63명이 참여하였음
- 교육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전문교육팀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지를 출신 국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3-6> 출신국가별 행사참여자 수

합계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63	26	23	5	5	3	1

자료: 안양시 새마을지회 내부자료, 2012

3) 주요 교육내용

- 한국문화의 이해,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 직업정신과 직장문화 등 소양교육 등임

구분	교육내용	비고
1일 (8.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교식 ▪ 한국가족문화 이해 ▪ 참여학습(가족친화력향상) 	
2일 (8.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신과 직장문화이해 ▪ 멘토의 역할과 이해 ▪ 지역사회 활동참여 	
3일 (8.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운동 지역사회 정착 ▪ 부녀회장과 자매결연 	

4) 문제점

-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
 - 첫째, 본 교육을 위해 글 2개월 전부터 부녀회장회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모집하였으나 5명만 신청함
 - 둘째, 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요청함
 - 셋째, 외국이주여성 국가별 회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총 71명이 접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3명 교육수료 함
- 자료 수집의 어려움
 - 본 교육을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청의 가족여성과에 있다고 회피
 - 가족여성과를 방문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자료가 대외비로 외부유출을 금지함
- 교육생자녀 돌보기의 어려움
 - 오래 거주한 대부분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가 있음
 - 교육을 받으러 올 경우 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함께 교육장에 옴
 - 할 수 없이 새마을회 부녀회장이 자녀들을 돌 볼 수밖에 없음

나. 다문화 가족과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사업

1) 사업개요

- 일시 : 2010. 9. 17(금) 08:30~16:30
- 장소 : 안양시 새마을 회관 지하주차장
- 참석인원 : 68명
 - 경기도 단체장 3, 새마을 단체장 4, 다문화가족 30, 각 동 부녀회장 31
 -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지도자 교육 대상자

2) 주요 사업내용

- 다문화 가족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쌀 60kg)
- 각동 부녀회장이 송편만들기 지도
- 친정부모 초청대상자 선정
- 재료비는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부담

다. 결혼 여성 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사업

1) 사업목적

-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녀회장과의 1:1 멘토
결연으로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결혼여성이민자 주부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통하여 안정감 부여 및 다문
화 시대의 국가 이미지 제고

2) 사업개요

- 기간 : 2010. 11. 14(일)~ 11.25(목)/ 12일간

- 소요예산 : 1,500(천원)
- 초청대상 : 황동염씨 친정부모(중국 길림성)
- 일정 : 한국문화체험 5일, 가정방문 7일

3) 주요사업

-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 한국문화체험 : 5일
- 경복궁, 청계천, 민속촌, 새마을연수원 등
- 환영식, 환영공식만찬 등
-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행사장 인솔
- 사돈(사위집)가정방문 7일

4) 초청자 선정 기준

- 다문화 교육 수료 우수자
- 부녀회행사 다수 참여자
- 친정부모 : 초청 방문 후 대한민국과 새마을운동을 파급(홍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모 우선 선정,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부모, 해외여행이 가능한 부모 중 부녀회임원들이 협의하여 선정

4. 공주시 새마을지회

가. 다문화 가정 및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 독서지도 및 책 읽어주기

1) 사업목적

-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들에게 언어 전달 지도가

- 잘 되지 않고,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줌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일시 및 기간 : 2010년 6월~11월까지
- 장소 : 16개 읍·면·동
- 인원 : 24가정 32명
- 예산 : 500만원
- 추진방법
 - 한 개 읍·면·동에서 어려운 조손 1가정(4세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다문화 1가정 선정
 - 매주 1회씩 방문하여 책임어주고 느낀 점과 독서방법 등을 지도하고, 그 외 어린이의 멘토를 해 줌

3)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5월	▪ 대상자선정	▪ 16개 읍·면·동에서 2가정씩 선정토록 함
6월~11월	▪ 방문하여 지도	▪ 책 읽어주고 느낀 점 대화하기 및 기타 멘토
12월	▪ 결과 토의	▪ 총 지도한 결과를 보고하고 잘된 점 등 토의 및 발전방안 모색

4) 문제점

-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함
 - 읍·면·동지회의 총무 혼자 본 업무 수행
 - 본 업무외 다른 일도 많아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움
 - 노력 정도에 비해 전시적인 효과가 없어 본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결혼이민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므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감

나. 다문화 주부와 함께 고추장 담가 불우가정 나눠주기

1) 사업목적

- 다문화 주부들에게 필수품인 고추장을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줌
- 다문화 주부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을 전달하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눔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기간 : 2009~2011년
- 장소 : 백제체육관 주차장
- 인원 : 200명
 - 외국인주부 80명, 새마을가족80명, 기타 40명
- 예산 : 1년 300만원
- 추진방법 : 부녀회장과 다문화 가정주부가 같이 고추장을 담가 다문화가정 및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줌

3) 일정별 사업내용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주부선정 및 고추장 배부 대상자 및 재료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읍·면·동별 다문화 주부 5명씩 선정 ▪ 어려운 가정 120가구 선정 ▪ 고추장재료, 부재료 준비
6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장 담그기 행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장 담기, 나눠주기

다. 기타 사업

1) 다문화가정과 음식나누기- 명절음식 만들기

- 일시 : 2011년 9월 2일
- 장소 : 새마을 회관
- 인원 : 50명
- 예산 : 350만원 내외
- 내용 : 다문화가정 주부와 추석명절음식 송편과 전을 만들어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 마련

2) 시민합동 전통혼례

- 일시 : 2011년 10월 8일
- 장소 : 선화당
- 예산 : 700만원
- 내용
 - 공주시민 중 형편이 어려워 혼례식을 치르지 못한 사실혼부부 5쌍(다문화4쌍)의 전통혼례식을 개최하였음

5. 문제점

가. 제도적 측면

1) 다문화가족 지원행사의 차별화 부족

-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례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 행사를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한글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이해하기, 남편교실

운영 등이 있음

- 위와 같은 행사는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요소로서 지역새마을지회 역시 이와 관련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행사는 타 기관들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중복행사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기관 간에 비슷한 행사를 중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주체기관에서 제공하는 선물이 없거나 준다하더라도 선물내용이 부실한 행사는 결혼이민자가 참석을 하지 않거나 선물을 많이 주는 행사를 선택해서 참석하려는 경향이 있음
- 즉, 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행사도 타 기관의 행사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

2) 일부 이벤트성 행사 개최

- 새마을지회의 주요 행사활동을 보면 친정부모 초청, 명절 떡만들기, 자녀 독서지도, 한국음식 만들기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임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부족과 새마을부녀회장의 시간 부족, 결혼이민자 참여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 주요 사업이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침으로 인해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부녀회장 들과의 지속적이고 유대감이 있는 인간적인 교류가 부족함

3) 새마을지회 인력부족으로 인한 조직적인 지원의 한계

-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마을조직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지회에서는 다양한 새마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다문화관련 업무도 하고 있지만 타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다 하다 보니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즉, 새마을조직 지회에서의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을 보면 사무국에 2-3명의 상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결혼이민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적·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음

4) 읍·면·동 단위 새마을조직의 한계

- 현재 새마을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세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일은 파악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마을단위의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일 역시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가까운 이웃에서 이들을 돕고 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민과 가까이 하는 새마을 조직의 실질적인 활성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이고 적절한 멘토를 위해 통·리 단위의 보다 세부단위의 새마을조직의 확대가 필요함

나. 운영적 측면

1) 적극적인 멘토 분위기 미성숙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및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그들을 지원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일정기간 가정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 등을 지도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음

-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은 교육기관과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개인 또는 가정생활의 어려운 점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함
- 새마을지회의 경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 등 마을의 리더들이 결혼이민자와 이웃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함
- 새마을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조직과 비교해서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여건이지만 이와 같은 활동이 아직은 미성숙 단계임
- 따라서 지역 내에서 결혼이민자와 이웃에 함께 살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2) 일부 회원의 고정관념 타파 필요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세들의 문제도 자주 나타나고 있음
- 만약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들이 성장한 후 발생하는 우리나라 사회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한국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있음
- 세계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정서가 이들을 우리 국민,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인식은 새마을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임

3) 결혼이민자 교육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경우 가장 어려운 일은 교육시간 동안 자녀들을 돌보는 것임
- 집안과 남편의 폐쇄성으로 인해 집밖에서의 자유로운 교육을 자주 받을 수도 없지만, 외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자녀를 돌 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며 소수의 인원으로서 이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거주지역에서 교육기관 까지 이동할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동 수단이 없어 부녀회장이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음

6. 시사점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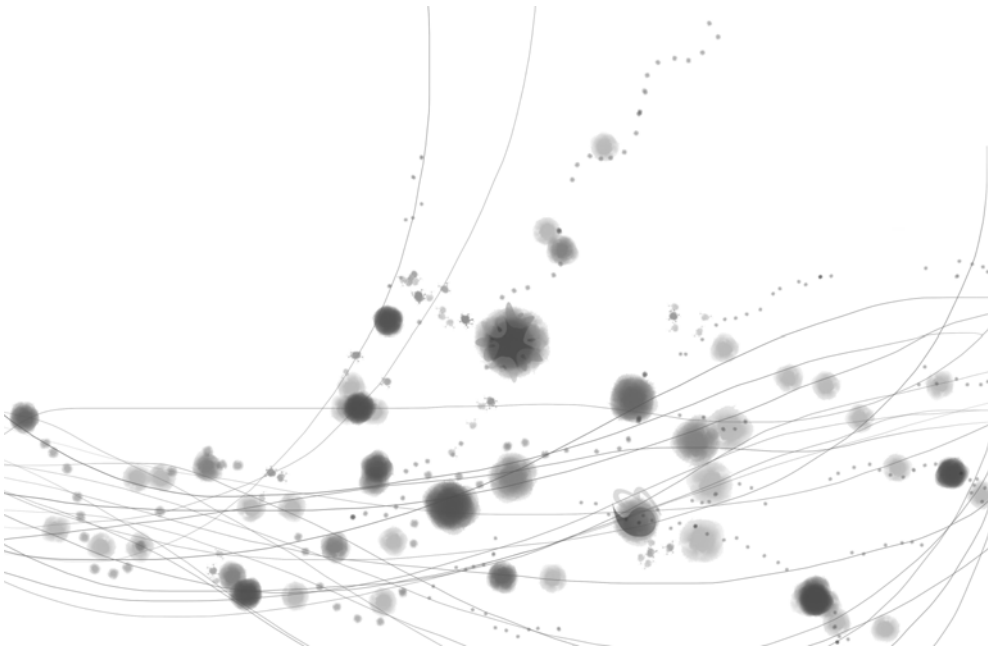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 농촌의 경우, 총각의 30-40%가 외국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마을에 2-3명의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음
-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거나 지역 행사를 하면서 이들과 어울려 공동체생활을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원이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거나 도와주려는 특별한 의지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의 부족도 있지만 아직은 이들을 멘토할 수 있는 소양 및 역량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역사회 리더인 이들에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물론, 이

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중앙연수원 및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 있음

- 한편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새마을조직은 결혼이민자들이 새마을 조직과의 연계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즉, 결혼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이들이 한국문화 및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새마을부녀회 등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주민 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사회 내부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음. 따라서 새마을부녀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제 4 장 의식조사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제2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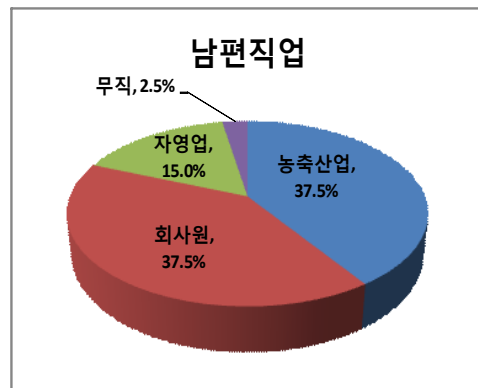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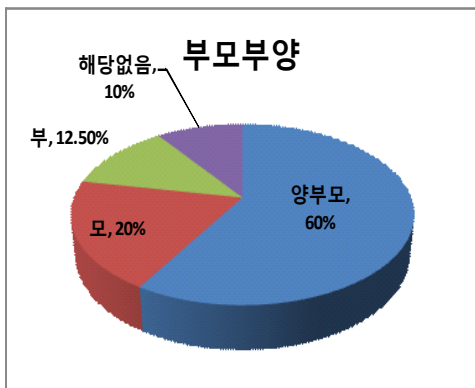
제 4 장 의식조사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¹⁷⁾

1. 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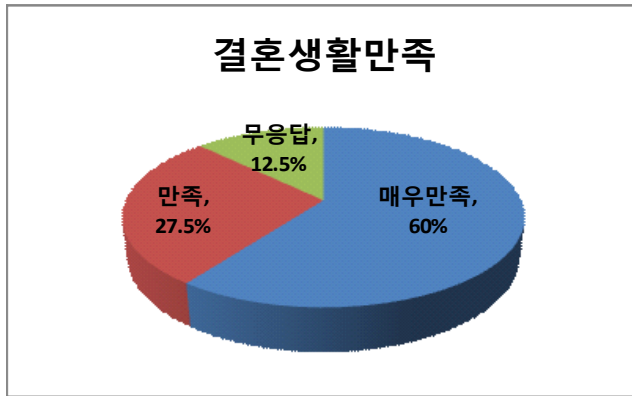
가. 결혼생활 환경 조사

-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참가한 결혼이민자 40명의 부모부양 여부 및 남편의 직업군 등 결혼생활 환경에 대해 설문
 - 양 시부모님 및 시부 또는 시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부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10%에 불과
 - 남편의 직업은 농축산업과 회사원의 비율이 각각 37.5%씩으로 같았으며, 무직자는 2.5%로 40명중 1명만이 무직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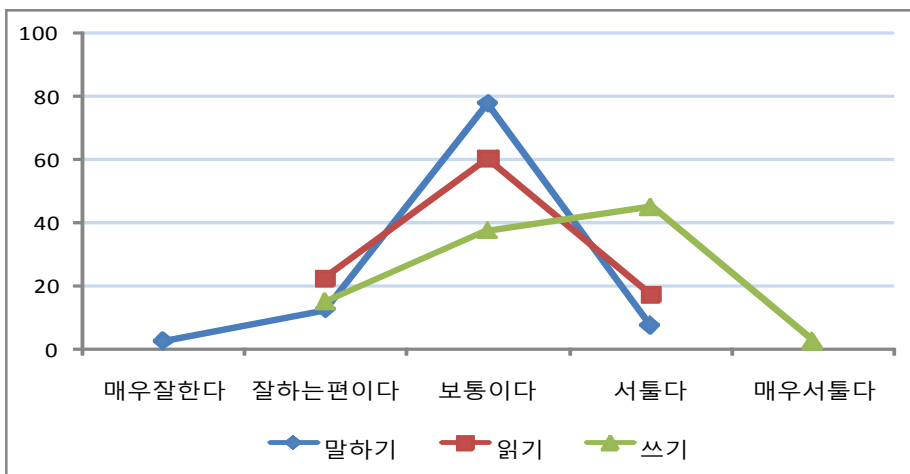
17) 새마을운동중앙회(2011), '결혼이민자 및 친정엄마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용

-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87.5%로, 초청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모범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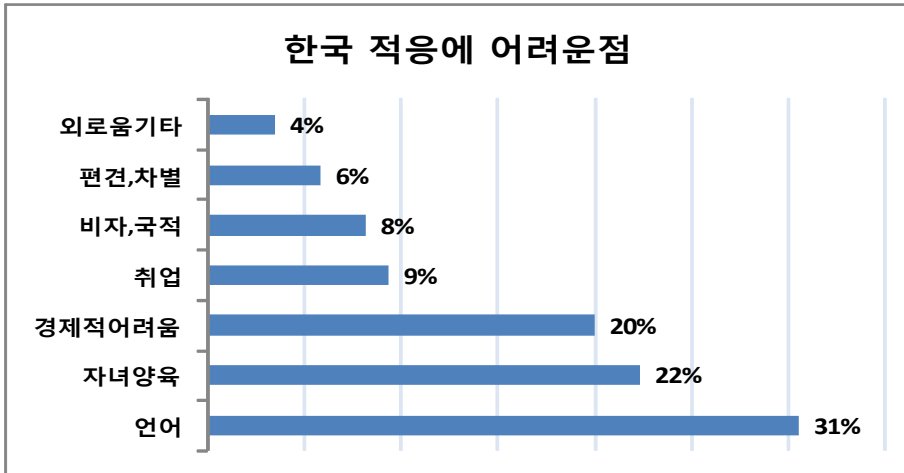


나. 한국어 수준 및 한국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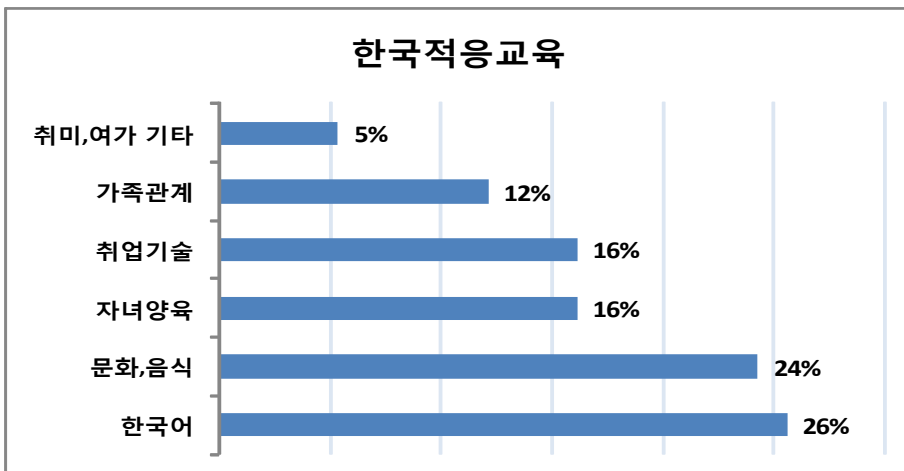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말하기·읽기 분야는 80% 이상이 보통이상이라고 대답했으며 쓰기 분야는 서툴다고 대답한 경우가 47.5%에 달했음



- 한국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문제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양육(22%)·경제적 어려움(20%)을 주로 대답
 - 한국어 구사 수준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나, 자녀양육·취업 등과 연계되는 수준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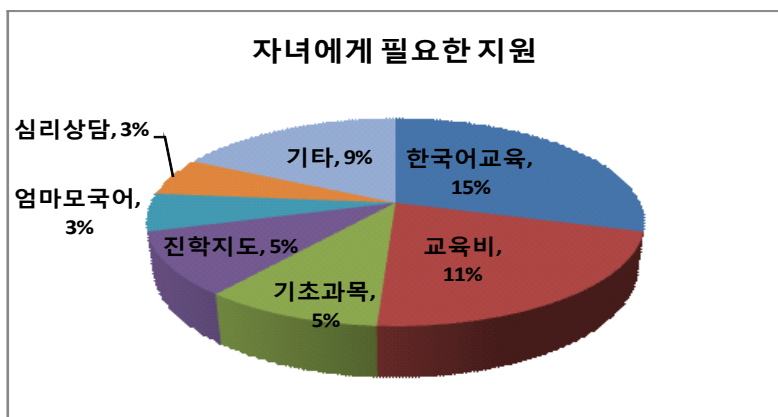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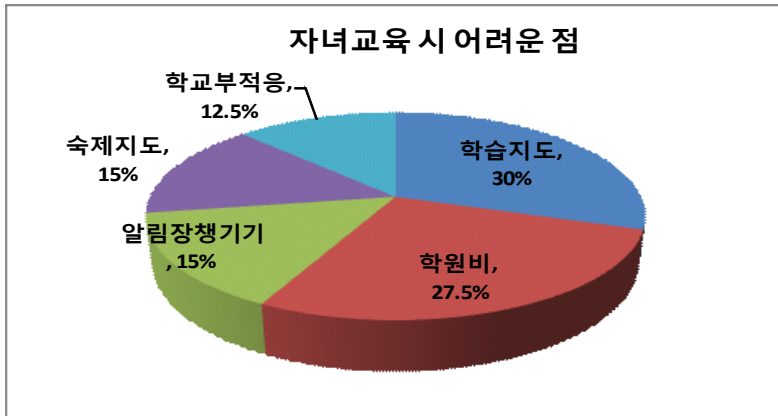


- 이와 연계하여, 한국 적응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한국어 교육(26%)·한국 문화이해 및 음식(24%)·자녀양육(16%)·취업기술(1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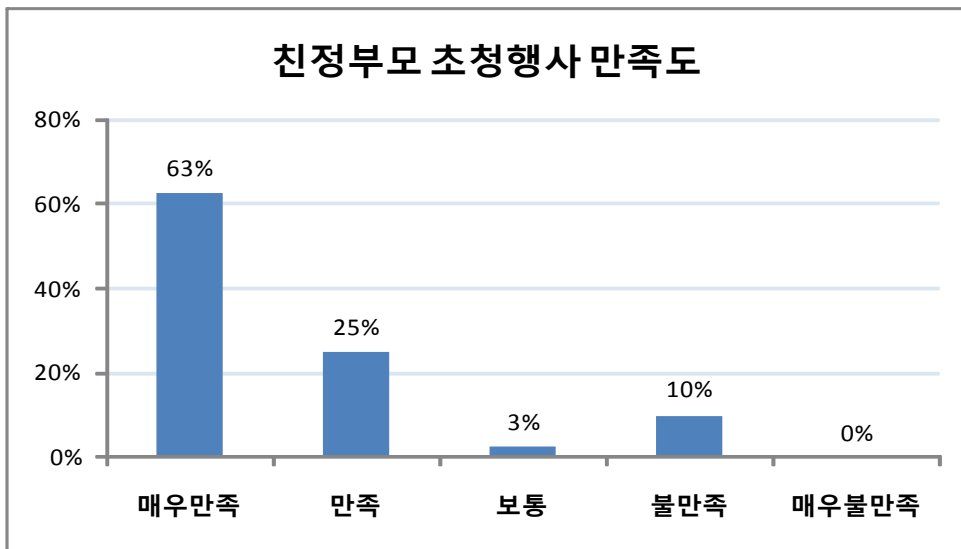
다. 자녀 교육 시 어려움 점과 필요한 지원

- 결혼이민자들이 언어문제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녀양육으로 우리나라 여성보다 학력수준이 낮고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민자들로서 자녀양육에 애로를 호소함
 - 자녀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학습지도(30%)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학원비(27.5%)도 부담스럽게 생각
 -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도 부모로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점을 염려하여 한국어교육(15%)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임



라. 2011년 친정부모 초청행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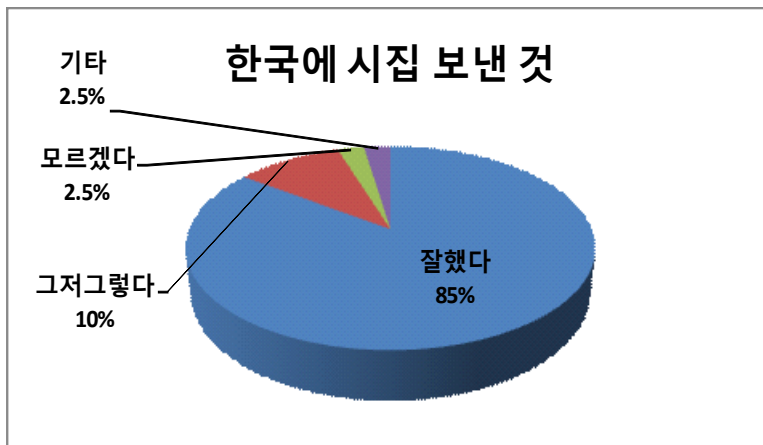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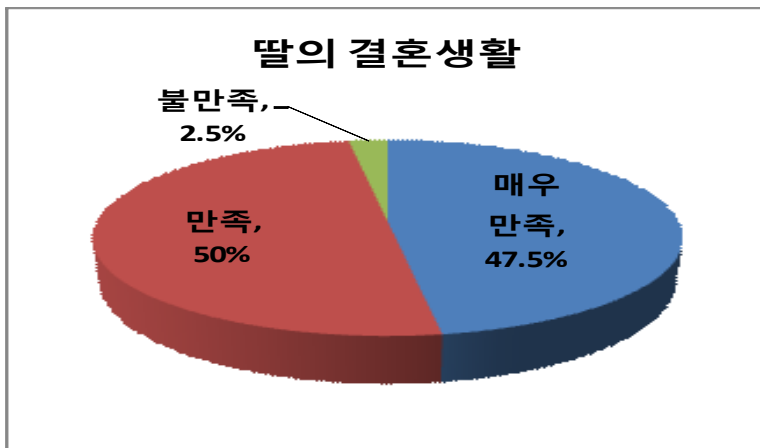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한 “2011년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100점 환산 88점)으로 “매우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초청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새마을 부녀 회원과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에 큰 기여
 - 또한, 가정형편 상 만나지 못했던 친정부모를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것과 한국의 전통 문화 및 발전된 서울 모습을 체험하는 데에 대해 매우 만족
 - 다만 10%에 해당하는 4명이 불만족으로 나타나 향후 초청행사 계획 수립 시 이민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만족을 최소화시킬 필요



2.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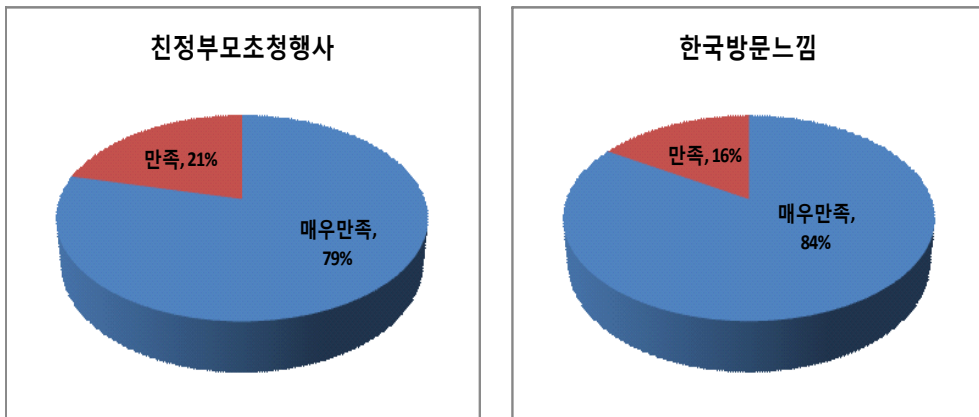
가. 딸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들은 딸을 먼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딸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른 던 차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심하고 만족해 함
 - 딸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해 90%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딸을 한국에 시집보낸 것에 대해 85%가 잘했다고 생각함



나. 친정부모 초청행사 만족도

- 친정부모들은 초청행사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전함
 - 아울러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음
 - 한국을 방문한 느낌은 84%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2011년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 (100점 환산 96점)으로 “매우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제2절 시사점

1.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한국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31%가 언어라고 답변하고 있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태임

-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 부족은 물론 취업의 어려움, 자녀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결혼이민자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강화

- 첫째,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앞의 결혼이민자 의식조사에서 언어문제 외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문제(16%)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학습지도(30%)와 학원비(29%)를 언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해 정규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수업, 과외수업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임
 - 결국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나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 및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숙제 지도는 물론 알림장 내용을 알지 못해 자녀가 학교에 준비해 갈 내용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자녀들이 영유아 때 엄마와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를 깨치고 두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두뇌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학습부진아가 될

-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어렵게 되어 많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사회저층으로의 전락을 예측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보육원 운영 및 방과 후 한글교실 운영, 특히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혼란 극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 많은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은 가난과 언어장벽, 사회적 소외의 3중고를 받고 있음
 - 어릴 때는 몰랐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엄마 및 자신의 외모 및 피부색깔이 주위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에 대해 창피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엄마 탓으로 돌리고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및 지역주민, 특히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의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3.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 강화

- 앞의 결혼이민자 의식조사에서 한국적응의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20%)과 한국 적응에 필요한 교육으로 취업기술(16%)을 들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음

- 즉 한국에 가면 모국에서의 생활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정 대부분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소득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상태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모국에서의 전문성 및 현재의 취업희망사항과 연계시켜 취업교육을 시킨 후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4. 결혼이민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살도록 주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함
- 일부 언론의 국내거주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음
- 비록 지금은 언어 등의 문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음
-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주변 이웃 주민도 결혼이민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국민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함
- 읍·면·동 및 마을단위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중심이 되어 결혼이민자의 가정문제, 즉, 남편과의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의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5. 친정부모 초청행사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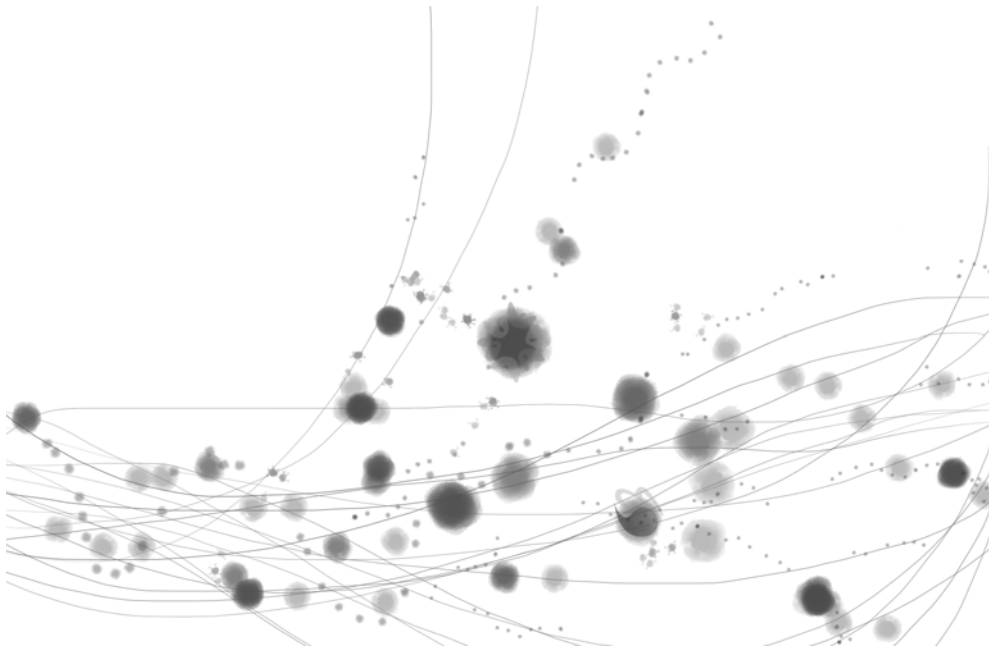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들의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이며, 친정부모들은 매우 만족(79%), 만족(21%)임
- 따라서 결혼이민자 및 친정 부모 모두 초청행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혼이민자들은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원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친정 부모 역시 딸을 한국에 시집보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어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부 불만족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검토·보완하여 행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제 5 장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방안 및 예산



제 5 장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특성별 문제 극복

가.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의 특성 강화

- 첫째, 새마을 운동의 근본이념인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결혼이민자 지원의 이념으로 활용 필요¹⁸⁾
 - 근면, 자조, 협동 이념은 결혼이민자 지원과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은 결국은 결혼이민자가 자주적으로 잘 살기 위한 지원이므로 “다문화가족의 자주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의 협동정신 강화” 등의 차원의 새로운 정신운동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하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다문화가족지원 행사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유대감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실질적인 멘토의 부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멘토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새마을부녀회, 지역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멘토자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며, 새마을부녀회가 운영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즉, 해당 지역에 가장 인력이 많고 훈련이 잘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

18) 본 내용은 새마을운동과 다문화사회를 각각 연구한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가 두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에서의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념적 비전을 제시한 것임. 즉,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기존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바 없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임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인력(지역의 관련 동아리 활용), 지역대학이나 대학동아리 직원들을 멘토로 활용하면 멘토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대학 미소재 지역 및 지역에 멘토로 활용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전직 교육자 출신들(혹은 교육자 단체), 전직 공무원 등 우수 퇴직자들을 “(가칭)명예다문화멘토”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때 멘토도 철저한 사전 교육과 훈련으로 일정정도의 전문화¹⁹⁾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새마을부녀회원과 멘토로 임명된 멘토들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멘토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멘토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이용

나. 새마을 조직의 일부 한계극복

- 첫째,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부족을 해결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다문화사회를 리드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운동과 결합해야 함²⁰⁾
- 둘째,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 조직으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읍·면·동 단위 조직을 보다 세분화 하여 통·리·반 단위조직으로 구성된 마을단위 부녀회를 세분하여 10가구 혹은 20가구로 연계하고 이 세포조직 내에서 1-2개의 다문화 조

19) 멘토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는 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나 전통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출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임

20) 이러한 신정신 운동은 마을공동체나 도시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위 지역사회자본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직을 이끌어가거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직을 할 필요가 있음²¹⁾

- 물론 이때에도 앞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 교육퇴직자그룹이나 기타 NGO 집단 등 해당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특수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필요로 함
- 결혼이민자의 멘토 조직은 새마을부녀회조직, 기타 새마을 조직, 지역 NGO 등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견고한 하부조직체계를 구축한 다음 상부조직인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안전부 등과 일치시켜 하나의 조직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렇게 할 경우 도시지역 특수성 극복,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자 교육 훈련 곤란 극복, 결혼이민자 교육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때 멘토나 멘티들에게 활용할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수적임

다. 기타

- 기타,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이 어려운 문제이나 결혼이민자들의 의식부족에 따른 참여비 제공 및 선물선호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에서 제시한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공동체, 멘토교육, 지역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해소되기 시작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나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특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새마을조직과 실제 활동의 연계가 필요하며, 새마을 농촌조직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21) 한 마을에 결혼이민자가 2-3명 정도 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실질적인 멘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20개 가구를 연계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활동인구 부족 가능 대처 필요

2. 단계별 활성화 방안

가. 초기 : 결혼이민자 멘토 활동의 활성화

- 결혼이민자들의 멘토 활성화는 새마을부녀회,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교육퇴직자 등 퇴직자 모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멘토자 확보 등이 필요함
 - 멘토활성화를 위해서는 멘토선발, 선발된 멘토의 자긍심 부여방안 도입²²⁾, 멘토의 사전교육과 사후 관리 등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화가 필수적임
-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우선, 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나 가족의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이민자들의 남편들을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로 연계 조직하여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²³⁾. 또한 남편들의 가치관 변화교육도 필요함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교육 등의 활동과정의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녀 돌봄이 서비스 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바, 새마을부녀회원 또는 지역대학 유아교육과 등과 연계가 필요함
 -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이동수단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즉, 집합교육 시 이동수단의 확보와 더불어 찾아가는 멘토시스템의 구축도 또한 필요함

22) 자긍심 부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가칭)명예다문화멘토”로 임명하고 이들의 봉사활동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명망 높은 전국 리통단위 부녀회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발전단계 :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의 강화

- 발전단계의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기에 멘토 활동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임. 즉, 초기에 멘토링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지역생활에 정착한 이들을 다시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임. 이들이 멘토링을 하게 되면 기존 멘토들과 함께 자신이 속했던 모국출신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에 많은 기여 할 것임
 - 다음으로 발전단계의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이들을 새마을 읍·면·동 조직 혹은 통리반조직²⁴⁾의 하나의 조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지역활동 참여에 활용하는 것임
 - 다만, 기존에 결혼이민자들의 참여가 참여비 혹은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은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다. 정착단계 : 결혼이민자의 자생력 강화

- 발전단계는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 강화와 더불어 이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서로 도우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안착되어 잘 사는 단계를 상정함
 - 이 단계에 이르려면 결혼이민자들의 자조정신도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인 기존 마을사람들도 결혼이민자들을 진정한 이웃, 새로운 동포 속에 포함시켜 함께 협동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즉, 결혼이민자들이 근면하게 그리고 자조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웃과 서로 협동하고 봉사하면 한국사회에 안착하여 우리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단계를 정착단계로 봄
- 다문화이주자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24) 2010.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통 44,402개, 리 36,436개, 반 475,754개가 있음

- 즉, 이들을 정착시킬 제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멘토 활동 등도 정착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새마을교육을 통한 지역새마을 일꾼으로 전환시키거나 결혼이민자새마을회(지도회)로 지역새마을조직 내에 또 다른 조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 고려 필요

<표 5-1>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 계	문 제 점	개선방안
초기단계: 결혼이민자 멘토활동의 활성화	- 선발멘토의 자긍심부여 및 멘토전문화 문제	- (가칭)명예멘토임명, 최우수 멘토선발 및 상장수여, 연수 등 자긍심 부여
	- 결혼이민자 남편의 불신문제	- 남편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일부 남편 멘토활용 및 남편들간 네트워크 구축
	- 멘토활동 중 자녀 돌봄이 문제	- 새마을부녀회, 지역대학유아교육과, 지역유치원 등을 활용하여 멘토시간 중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 이동수단부족 문제	- 집합교육시 봉고차 대절 활용 등 방안 강구 - 찾아가는 멘토서비스 개발
발전단계: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 강화	- 초기멘토 교육자의 참여강화 문제	- 초기멘토교육자를 멘토로 활용 - 새마을읍·면·동조직 또는 통리반이 조직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후발멘토 활동에 적극 활용 등
정착단계: 결혼이민자의 자생력 강화	-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제도화 문제	- 지속적인 새마을정신교육을 통해 지역새마을 일꾼으로 정착 - 멘토교육을 통해 네트워크로 구성되 결혼이민자들을 또 다른 (가칭) 결혼이민자새마을 회로 구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

제2절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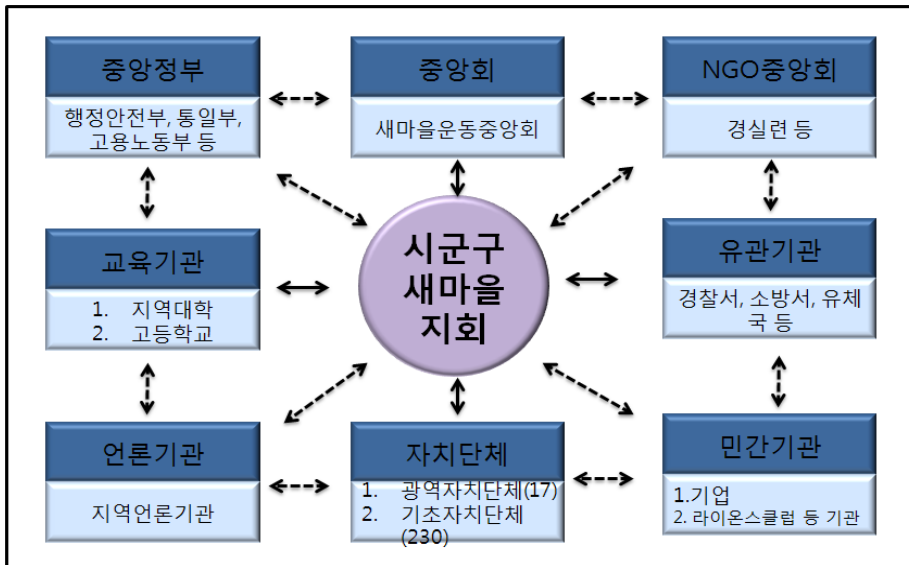
1.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조직설계방안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조직구성 형식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조직은 네트워크형이 효율적일 것임. 다만, 네트워크 내에 주도단체, 보조단체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주도단체, 보조단체, 결혼이민자가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체계화 및 네트워크 해야 함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조직구성 방법
 - 우선,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정점으로 두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중앙정부와 각종 NGO 단체 중앙회를 상급기관으로 네트워크화 함
 - 다음으로 시·군·구새마을지회를 바탕으로 교육기관(대학, 고등학교 등) 유관기관(경찰, 소방, 우체국 등)을 지역기관으로 네트워크화 함
 -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언론기관과 지역 민간집단인 기업, 라이온스클럽 등을 지원조직으로 네트워크화 함²⁵⁾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체조직을 하나의 총체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지역새마을지회가 결혼이민자가정을 지원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제로 구축함
- 지역새마을지회가 결혼이민자가정을 충실하게 잘 지원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과 집단을 네트워크화 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받고 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25)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1년 약 201개)와의 공조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림 5-1>의 네트워크 핵심은 시·군·구 새마을지회로서 새마을지회가 시·군·구,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의 결혼이민자 생활멘토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다만, 결혼이민자 멘토링 활동을 통한 지원은 지역조직이 핵심인 바, 지역조직이 핵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조직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 함
 - 즉, <그림 5-2>의 시·군·구새마을지회를 바탕으로 하부조직 및 운영체제를 구축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혹은 전국조직체계를 갖춰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림 5-1]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전국 조직도(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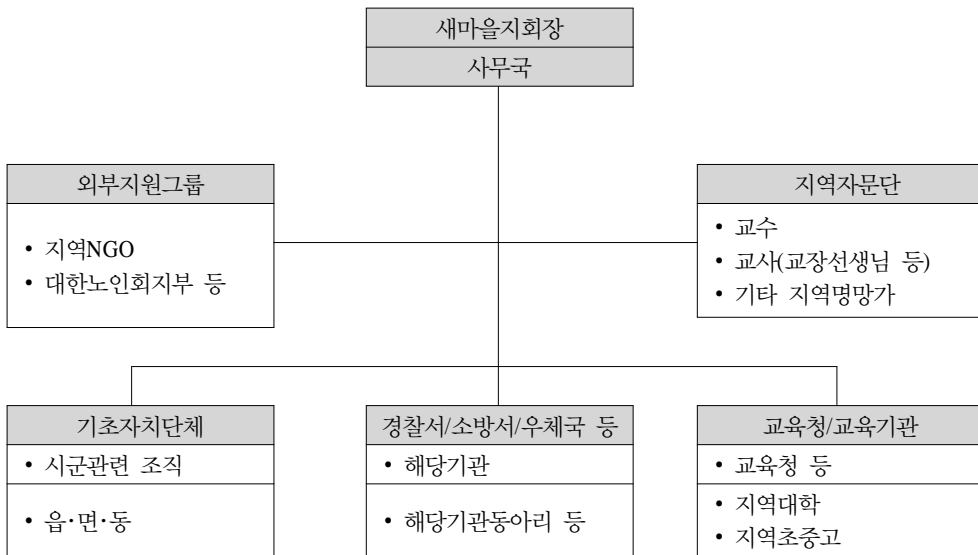


※ 시·군·구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네트워크 구축(안임)

- 결혼이민자가정 지역추진 조직구성
 - 결혼이민자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추진조직은 아래의 <그림 5-2>와 같이 조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첫째, 시·군·구새마을지회장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핵심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지원체계의 센터를 형성함
- 둘째, 지역NGO 등을 중심으로 외부 지원그룹을 조직하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셋째, 멘토 역할을 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그룹으로 지역교수나, 교사 등 명망가를 중심으로 자문 및 지원그룹 형성
- 넷째, 시·군·구새마을지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서 등 조직, 지역교육기관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추진체계 구성이 필요함

[그림 5-2] 시·군·구새마을지회 추진 조직도



- 시·군·구새마을지회의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편중 거주 문제 해결방안
 -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거주가 편중되어 있는 바, 다수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우선, 결혼이민자 다수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시도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즉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적 확산필요

2. 결혼이민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가. 운영시스템

1) 운영주체

- 지원단 구성은 주관기관과 후원부서로 나누어 운영주체를 형성
 - 주관기관 : 핵심운영주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하고 관련 지부, 지회, 읍·면·동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수직적 운영연계 시스템을 구축함
 - 이중 결혼이민자가정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조직은 부녀회로 읍·면·동 부녀회나 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될 것임 <표 5-1참고>
 - 후원기관 :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후원기관은 중앙정부부처, 정부산하기관, 기업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음. 다만, 핵심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많은 지원기관에서 오는 운영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핵심 부서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을 유도하거나 일원화창구로 관리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정의 복지지원, 노동부는 다문화 여성이나 가족의 취업지원과 교육훈련지원, 여성가족부는 결혼여성의 여성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을 위해 이 기관들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조직의 상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후원기관으로서 창구 일원화하는 것이 지원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현황

구 분		협의회 임원 등 현황
조 직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 임 원 : 회장1, 부회장2, 총무1, 이사20인이내, 감사2
	시 도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시도새마을부녀회 ▪ 임 원 : 회장1, 부회장2, 총무1, 운영위원, 감사2
	시·군·구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시·군·구새마을부녀회 ▪ 임 원 : 회장1, 부회장2, 총무1, 운영위원, 감사2
	읍·면·동 (3,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읍·면·동새마을부녀회 ▪ 임 원 : 회장1, 부회장2, 총무1, 운영위원, 감사2
회 원 수		1,597,433명 (새마을지도자 79,999명, 회원 1,517,434명)

자료 : 새마을운동중앙회 내부자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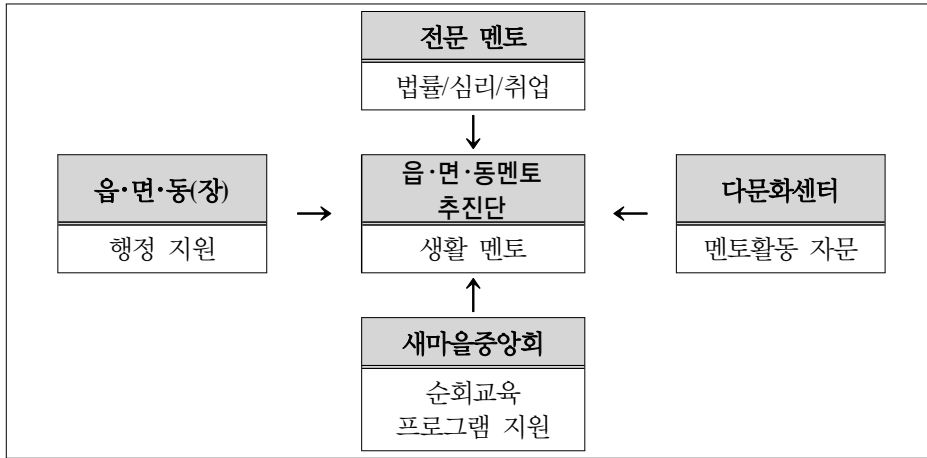
2) 운영체계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단의 운영체계는 상기의 운영주체를 정점으로 중앙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분담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주체별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새마을운동중앙회 :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순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과 해당지역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멘토들을 1차 교육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문제점 도출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부녀회원 등 멘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임. 즉, 생활멘토 교육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읍 면 동(장) :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읍·면·동장은 다문화가정의 수, 가족현황, 소재지파악 등 다문화가정의 멘토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지원을 수행

-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별 평생교육팀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전문멘토 : 읍·면·동 멘토추진단의 생활멘토 추진에 필요한 법률·심리·취업 측면의 전문적 조언이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임
 - 즉,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률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심리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에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축적과 실제 멘토활동 등을 하는 그룹임
 -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기초활동과 이들의 멘토활동 결과가 읍·면·동 멘토추진단에 적절히 연계되어야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멘토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필요한 경우, 지역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교육훈련 경험이 풍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을 읍·면·동멘토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멘토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읍·면·동 멘토추진단 :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멘토추진단(약 17만명)은 관련조직들의 도움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에 직접적으로 멘토활동을 하는 생활멘토들 임²⁶⁾
 - 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전문적으로 무장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있음

26) 새마을부녀회장 및 회원수 현황은 시도회장 16명, 시·군·구회장 232명, 읍·면·동회장 3,519명, 리통지도자 76,232명으로 총 79,999명이며, 이들과 회원 1,517,434명의 회원을 합하면 전국에 부녀회관련 임원 등 회원 수는 총 1,597,433명임. 이중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류는 리통부녀회장 76,232명임

[그림 5-3] 결혼이민자가정 지원단의 운영체계



나. 조직(읍·면·동 단위 추진체계): 읍·면·동별 구성, 마을단위 활동

- 읍·면·동 멘토 추진체계는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멘토활동을 수행하게 될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래의 <그림 5-4>와 같이 구성함

1) 생활멘토

- 자녀지도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중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활동이 생활멘토임
 - 생활멘토의 핵심역할은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학습지도, 친구결연 등임. 결혼이민자는 한글이 서투르기 때문에 2세 학습지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므로 2세들의 학습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친구연결은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와 마을단위의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을 친구로 연결해서 함께 교육하고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 생활체험 : 생활체험은 결혼이민자가정주부의 한국 적응을 위한 멘토활

동으로 의식주체험, 문화관습체험 등이 있음

- 의식주체험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문화와 관련되는 것과 옷입기 등의 예절과 관련됨. 특히 밥 짓기, 김치 담기, 고추장 담기, 된장 및 감장 담그기 등은 중요한 체험이자 이들의 미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
- 문화체험은 한국의 민속예절, 제례 등 다양한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외국여성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킴과 동시에 자녀들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정보제공 : 결혼이민자가정의 여성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보접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생활전반, 취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사회참여 : 결혼이민자가정 여성들이 지역봉사, 그룹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해당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원으로 동화되는 과정인 바,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이웃 동네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활동임
- 생활멘토 확보 방안 : 생활멘토는 해당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 해당지역 교육퇴직자, 해당지역 대학봉사자나 동아리 등을 우선적으로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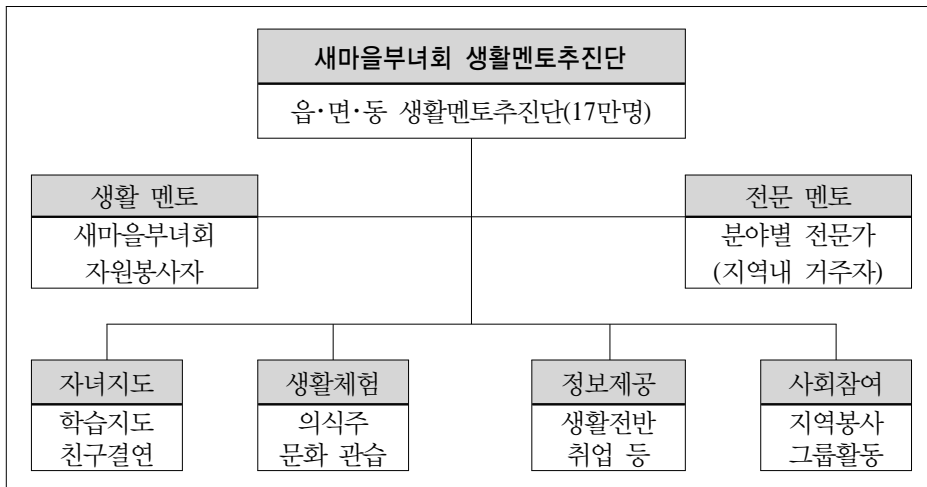
2) 전문멘토 : 분야별 전문가(지역 내 거주자)

- 전문분야 : 전문분야 멘토는 지역거주자들²⁷⁾을 중심으로 법률·심리·권익·편견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의식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멘토활동임

27) 농촌지역에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도시지역의 대학이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이들의 전문활동이 다문화가정여성들의 권익보호와 가정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정보제공 : 정보제공은 분야별 전문가가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취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가정경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임
 - 대체로 다문화가정은 가정의 삶이 열악한 형편인 바,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전문멘토 확보 방안 : 전문멘토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 법률, 심리상담가 등을 우선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대학이나 NGO조직이 없어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많을 것인 바, 전문멘토는 도 단위로 3개 팀 내외를 구성해서 해당시군이나 마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그림 5-4] 읍·면·동 멘토 추진체계



다. 생활멘토추진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새마을부녀회원 등을 포함한 멘토추진단은 생활멘토로서의 자격과 지식은 갖추었지만, 이들의 지식을 실제로 멘토 역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 수준정도로 교육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연수 혹은 교육의 시간과 절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개발한 순회교육프로그램, 지역멘토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8시간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
 - 이 프로그램은 (가칭) 멘토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내용은 다문화 및 멘토 관련 강의, 프로그램강의적용 소개, 질의 응답으로 구성함
-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 예산은 생활멘토교육비 활용
 - 제1안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활용방안으로 동 연수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련인원 235시·군·구 부녀회장 및 부회장 2명을 포함해서 약 700여명에게 강의하는 방안과 235지회 임원6명 전원인 1,400여명에게 교육하는 방안
 - 제2안 : 동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방안으로 동 연구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가칭)다문화교육센터 혹은 다문화멘토 프로그램운영센터)하여 관련인원 235지회장 및 부회장 2명을 포함해서 약 711명에게 강의하는 방안과 235지회 임원6명 전원인 1,422명에게 교육하는 방안
 - 제3안 : 교육인원을 보다 많이 하기 위하여 동 연수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35개 시·군·구새마을지회 또는 50개 지회(4-5개 지회 통합)에서 마을단위 부녀회장 79,999명 또는 멘토추진단 17명 전원에게 필요한 교육 4시간 내외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함. 이 3안을 활용

할 경우 일종의 멘토추진단 발대식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교육내용이 빈약해 질 수 있음

3.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 실시 및 멘토추진단 활성화 방안

가. 시범사업 추진

- 생활멘토의 추진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8개 도에서 1개 지역씩 시범사업 추진을 시행하되, 생활멘토 중심으로 운영
- 1차 시범사업추진단 운영
 - 1단계 : 멘토 대상지역 및 멘토 대상자 30명 정도선정
 - 2단계 : 해당지역 부녀 회원 중 멘토선발 및 멘토교육
 - 3단계 : 멘토링사업 실시(약 6개월 집합교육 2회, 찾아가는 멘토 2회)
 - 4단계 : 실시결과 평가
 - 5단계 : 환류,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보완점 등을 찾아 보완

나. 전국 확산

- 1/3실시 : 예산확보여부에 따라 전체 동시실시 혹은 1/3정도로 나누어 실시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1/3이 가능할 것임
 - 1/3로 나누어 실시할 경우 결혼 이민자 220,687명을 70,000명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3년 정도 소요됨
 - 70,000명으로 나눌 경우 읍·면·동부녀회장 3,477명 중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대상은 1지회, 적은 지역은 2-3개 지역을 1반으로 편성운영
 - 이렇게 할 경우 약 2,300개 내외의 반을 편성해서 1개 반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면 가능할 것임
 - 즉, 2,300지역 × 30명 = 69,000명으로 실시 가능함

- 전체 동시 추진 운영
 -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동시추진도 가능함
 - 이때 결혼이민자가 없거나 적은 동 단위는 통합해서 실시
 - 결혼이민자 220,687명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약 30명을 대상으로 하면, 약 7,000개위 멘토단이 필요한 바, 마을단위 부녀회장이 79,999명 있으므로 이 부녀회를 묶어서 7,000개 멘토 단위로 형성하여 멘토사업 실시가 가능할 것임
 - 전체 220,687명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앞에서 제시한 전문멘토단도 구성 필요

다. 멘토추진단 활성화 방안

- 멘토추진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새마을부녀회원외에 다양한 인력을 멘토추진단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즉, 앞에서 제시한 (가칭)명예다문화멘토위원 임명 등 방안 활용
- 다음으로 멘토추진단발대식, 멘토추진단교육, 멘토활동격려(설, 추석 격려, 연말 멘토 포상 등) 등 방안 활용필요
- 그 다음으로 멘토추진단이 다문화 가정 방문 멘토시 최소한의 교통비, 식비 등을 실비로 지원 등이 필요함

4.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 운영 단계

가. 1단계 : 시범사업추진

-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일정부분의 마을(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필요
 - 이때 프로그램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반적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야 함

나. 2단계 : 확산단계

-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에는 마을단위부녀회장 79,999명을 생활멘토로 활용하여 1차 확산 단계로 적용필요

다. 3단계 : 전반적인 적용단계

- 새마을부녀회 79,999명을 생활멘토로 활용하여 1차 확산 단계의 적용을 마치고 성과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 생활멘토추진단 약 17만 명 전체를 활용하여 정착하는 단계임

참고문헌

- 강휘원. (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2007년 한국행정학회·구미시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96.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식 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곽준혁. (2007).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126-143. 교육과학기술부.
- 구견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체계. 『현상과 인식』. (90) : 29-52.
-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 국경없는 마을.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발표집.
- 김혜순. (2007).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부계 부권의 가족중심주의와 지역인지성”.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에스닉과 다문화주의 인류학(Ethnicity and Anthropology of Multiculturalism)』 .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36-71.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57-79.
- 설동훈. (2008). “한국사회의 소수자문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국정과제 기획토론회 자료집
- 윤인진. (2008).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행정안전부: 79-99.
- 이재정. (2003).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재외한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 「민족연구」, 11: 103-116
- 이종열·황정원·노지영. (2008).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pp.75-95
- 이혜경. (2007). 이민 정책과 다문화 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한국사회학회 기타 간행물, 219-250.
- 장혜경.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연구」. (5). 97-110.
- 정정희.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조현미. (2008). “다문화시대의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최현미. (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정책모색을 위한 워크숍」. 행정안전부: 101-119.
- 한승준. (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 Barber, B.R. "Global Multiculturalism and American Experience, "Ethic and Policy Journal, 10권 1호(1993),
- Charles. Taylor.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anklin, J.H. (1989). Race and Histo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Gerry Stoker. (1987).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Macmillan Press. 2nd. 30.

- Hillery, G. A. (1995).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Vol. 20.
- Haeberle, William D. (1987). Neighborhood Ident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Vol. 19-2.
- Rohe, William M. (1985). *Planning with Neighborhoods,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Shergold, P. (2008).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 O'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13-22.
- Troper, Harold. (1999).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 997-10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Vertovec, Steven. (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 Wanna, J. (2008). Collaborative Government: Meanings, Dimensions, Drivers and Outcomes. in J.O'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 3-12.d

〈부록〉 새마을부녀회 생활멘토추진단 활동예산(안)

- 본 예산은 국가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

1. 1안

- 마을단위 부녀회장 79,999명이 활동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안으로 약 152억원 내외의 예산 필요

1) 프로그램개발비 : 600,000,000원

- 새마을 중앙회는 결혼이민자가정의 멘토 등 순회교육에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 해당지역의 멘토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순회교육프로그램 : 1건, 소요예산 약 300,000,000원 내외
 - 지역멘토프로그램 : 3건(상중하로 구분 필요)
 - 3건 × 100,000,000원 = 300,000,000원

2) 생활멘토 교육비 : 470,499,000원

- 생활멘토교육비는 생활멘토에 투입될 일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군·구 협의회당 1회로 산정함. 읍·면·동 부녀회가 3,477개 이며, 임원 6명만 참석하여도 시·군·구 협의회당 1회 산정이 타당함 (시·군·구회당 약 15개의 읍·면·동 부녀회가 소속됨)
 - 소요비용
 - 강사비 : 300,000원 × 235시·군·구지회 = 70,500,000원
 - 자료인쇄비 : 5,000원 × 79,999명(마을단위부녀회장) = 399,999,000원

3) 읍·면·동 추진단 운영비 : 6,258,600,000원

- 읍·면·동 추진단 운영비는 읍·면·동당 1회 300,000원으로 산정
- $300,000 \times 6\text{회(년6회)} \times 3,477\text{(읍·면·동부녀회수)} = 6,258,600,000\text{원}$

4) 중앙·시도·시·군·구 연결행사비 : 231,840,000원

- 연결행사비는 시도지회 17개, 시·군·구지회 235개의 일부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산정
 - 시도지회행사비 : 15,640,000원
 - 강사료 : $3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7\text{(지회)} = 5,100,000\text{원}$
 - 음 료 : $2,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17\text{(지회)} = 1,020,000\text{원}$
 - 인쇄비 : $2,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17\text{(지회)} = 1,020,000\text{원}$
 - 기타 소요경비 : $500,000\text{원} \times 17\text{(지회)} = 8,500,000\text{원}$
 - 시·군·구 지회행사비 : 약 216,200,000원
 - 강사료 : $3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235\text{지회} = 70,500,000\text{원}$
 - 음 료 : $2,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235\text{지회} = 14,100,000\text{원}$
 - 인쇄비 : $2,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235\text{지회} = 14,100,000\text{원}$
 - 기타 소요경비 : $500,000\text{원} \times 235\text{지회} = 117,500,000\text{원}$

5) 다문화가정방문활동 : 3,599,955,000원

- 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생활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가정방문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년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함
 - 지도활동비(음료방문 및 생활현장 안내) $15,000\text{원} \times 79,999 \times 3\text{회} = 3,599,955,000\text{원}$

6) 다문화 자녀지도 활동 : 2,764,104,000원

- 생활멘토의 한 방안으로 마을단위 부녀회장들이 다문화자녀지도 활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년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함

- 식비 : 6,000원 × 79,999(마을단위부녀회장) × 3회 = 1,439,982,000원
- 간식비 : 2,000원 × 220,687(결혼이민자수) × 3회 = 1,324,122,000원

7) 전문멘토운영 : 994,012,000원

- 전문멘토들이 다문화자녀지도 활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년 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함. 전문멘토 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읍·면·동당 1전문멘토를 활용하는 형태로 읍·면·동부녀회 수 만큼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교통비 : 10,000원 × 3,477(읍·면·동부녀회) × 2회 = 69,540,000원
- 식 비 : 6,000원 × 3,477(읍·면·동부녀회) × 2회 = 41,724,000원
- 간식비 : 2,000원 × 220,687(결혼이민자수) × 2회 = 882,748,000원

8) 활동수첩제작비 : 381,810,000원

- 멘토활동 등의 활동 시 메모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적어서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첩제작비
- 소요비용 : 수첩제작비 : 5,000원 × 79,999명(마을단위부녀회장) = 399,995,000원

9) 총 추산비

- 상기에서 제시된 비용을 대강 추산하면 15,318,996,000원임
- 따라서 약 1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보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함

10) 기타 필요경비

- 상기에서 제시한 비용은 다문화가정멘토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것임
- 이 이외에 필요한 비용으로 멘토발대식 경비, 멘토활동격려비(다문화 센터, 선진지 견학 등), 종합평가(사례발표회 등 포상)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표 1> 활동 소요경비 산출내역서(1안)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프로그램개발비		600,000,000 원
순회교육프로그램	300,000,000원×1건	300,000,000 원
지역멘토프로그램	100,000,000원×3건	300,000,000 원
2. 생활멘토교육비		470,499,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235지회	70,500,000원
자료인쇄비	5,000원 × 79,999(마을단위부녀회장)	399,999,000원
3. 읍·면·동 추진단운영비		6,258,600,000원
운 영 비	300,000 × 6회(년6회) × 3,477(지회)	6,258,600,000원
4. 중앙, 시도, 시·군·구 연결행사비		231,840,000원
1) 시도지회행사비		15,640,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1 명 × 17(지회)	5,100,000원
음 료 비	2,000원 × 30명 × 17(지회)	1,020,000원
인 쇄 비	2,000원 × 30명 × 17(지회)	1,020,000원
기타행사비	500,000원 × 17(지회) =	8,500,000원
2) 시·군·구 지회행사비		216,200,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1 명 × 235지회	70,500,000원
음 료 비	2,000원 × 30명 × 235지회	14,100,000원
인 쇄 비	2,000원 × 30명 × 235지회	14,100,000원
기타행사비	500,000원 × 235지회	117,500,000원
5. 다문화 가정방문활동		3,599,955,000원
지도활동비(음료방문 및 생활현장 안내)	15,000원×79,999(마을단위부녀회장)×3회	3,599,955,000원
6. 다문화 자녀지도 활동		2,764,104,000원
식 비	6,000원×79,999(마을단위부녀회장)×3회	1,439,982,000원
간 식 비	2,000원×220,687(결혼이민자수)×3회	1,324,122,000원
7. 전문멘토운영		994,012,000원
1일 교통비	10,000원×3,477(읍·면·동부녀회수)×2회	69,540,000원
식 비	6,000원×3,477(읍·면·동부녀회수)×2회	41,724,000원
간 식 비	2,000원×220,687(결혼이민자수)×2회	882,748,000원
8. 활동수첩제작		399,995,000원
제 작 비	5,000원 × 79,999명(마을단위부녀회장)	399,995,000원
5. 합 계		15,318,996,000원

2. 2안

- 마을부녀회 76,362명을 포함한 읍·면·동 생활멘토추진단 17만명이 활동할 것을 전제로 잡는 안으로 약 216억 원 내외의 예산 필요함

<표 2> 활동 소요경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 (2안)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프로그램개발비		600,000,000 원
순회교육프로그램	300,000,000원×1건 =	300,000,000 원
지역멘토프로그램	100,000,000×3건 =	300,000,000 원
2. 생활멘토교육비		920,500,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235 지회 =	70,500,000원
자료인쇄비	5,000원 × 170,000(읍·면·동추진단)명=	850,000,000원
3. 읍·면·동 추진단운영비		6,258,600,000원
운 영 비	300,000 × 6회(년6회) × 3,477=	6,258,600,000원
4. 중앙, 시도, 시·군·구 연결행사비		231,840,000원
1) 시도지부행사시		15,640,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1 명 × 17(지회)	5,100,000원
음 료 비	2,000원 × 30명 × 17(지회)	1,020,000원
인 쇄 비	2,000원 × 30명 × 17(지회)	1,020,000원
기타행사비	500,000원 × 17(지회) =	8,500,000원
2) 시·군·구 지회행사비		216,200,000원
강 사 비	300,000원 × 1 명 × 235지회	70,500,000원
음 료 비	2,000원 × 30명 × 235지회	14,100,000원
인 쇄 비	2,000원 × 30명 × 235지회	14,100,000원
기타행사비	500,000원 × 235지회	117,500,000원
5. 다문화 가정방문활동		7,650,000,000원
지도활동비(음료방문 및 생활현장 안내)	15,000원×170,000(읍·면·동추진단)×3회	7,650,000,000원
6. 다문화 자녀지도 활동		4,384,122,000원
식 비	6,000원×170,000(읍·면·동추진단)×3회	3,060,000,000원
간 식 비	2,000원×220,687(결혼이민자수)×3회	1,324,122,000원
7. 전문멘토운영		994,012,000원
1일 교통비	10,000원×3,477(읍·면·동부녀회)×2회	69,540,000원
식 비	6,000원×3,477(읍·면·동부녀회)×2회	41,724,000원
간 식 비	2,000원×220,687(결혼이민자수)×2회	882,748,000원
8. 활동수첩제작		850,000,000원
제 작 비	5,000원 × 170,000(읍·면·동추진단)	850,000,000원
5. 합 계		21,657,234,000원